

SCENARIO

VER .

2022. 08. 20

파일럿

(The Pilot)

각본 조유진
감독 · 각색 김한결

제작 쇼트케이크 · 무비락

1. 유퀴즈온더블럭, 방송화면 / 오후

insert. 정우의 공군사관학교 졸업 사진 이미지

[자막 - 수석졸업 한정우 생도]

insert. 비행기 리버스 앞에서 하계 파일럿 복장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정우의 사진

[자막 - 20XX 국내 항공사 입사]

유재석과 조세호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파일럿 정복을 착용한 정우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석 공사 수석 졸업을 거쳐 본인의 꿈이었던 항공사 취업.
 무려 대형 항공사 3사에서 러브콜을 받으셨어요. 매 순간이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정우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었을 때.

아~! 동의하는 리액션을 보이는 유재석과 조세호.

정우 그때 처음으로 가족들이 뒀었어요. 그날따라 하늘도 너무 예쁘고.
 또 저의 비행 실력이 정점을 찍었을 때라.
유재석 (웃음) 스스로 생각해도?!

정우 (웃음) 심지어 탑승하자마자 주무셨던 어떤 승객 분께서 비행기가 왜 이륙을
 안하냐고 승무원분께 항의하셨는데.. 도착지인 걸 그제야 아셨다고.
 (MC들 웃음소리)

유재석 아 그 정도로
정우 그 정도로
조세호 너무 부드럽게
정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재석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했다?
정우 지금은 더 잘한다.

웃음을 터뜨리는 유재석과 조세호 외 제작진.

조세호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보다보니까 시계가 파일럿 전문 시계...
정우 맞아요. 네.
조세호 비싸죠?
정우 (미소) 비싸죠.
유재석 아니 조셉은 뭘 또 그런 걸 여쭙보고 그러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insert. 기장 승격 심사 후 견장 받는 순간 정우의 스틸 사진.

너와 함께 한 모든 비행이 좋았다☆

cut to.

잔잔하고 감동적인 음악 깔린 채, 정우의 pd 단독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다.
꽤 진지하게 곰곰이 고민하며 이어가는 정우의 인터뷰.

정우 설 때? (가웃) 글썄요. 쉬어본 적이.. 사실은.. 언제였더라..
비행이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오프 때도 늘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 운동을 하구요...

[자막 - 쉬는 시간도 허투르게 쓸 수 없는 프로파일럿의 세계...]

cut to.

정우 당연히 힘든 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책임감과 부담?
이 비행기에 탄 모두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뭐..
그런 압박감이 자신과의 싸움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울컥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우. 스스로 얘기하다 감정에 복받친 듯 손끝으로 눈가를 톡톡 친다.

정우 (민망하다) 아우.. 이게 참.. 스읍..

[자막 - 부담감... 때론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도 평범한 사람일 뿐...]

cut to.

정우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홀로 키우셨죠...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야 비로소..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열심히 자신 이야기를 하는 정우의 얼굴.. 위로 띠링-띠링- 효과음과 함께 댓글 반응 떠오른다.

기장님 결혼 하셨나요? 너무 잘생김ㅠㅠ
비행기 타게 여행 갈 나라 좀 찾아봐야겠다.
유퀴즈 섭외력 미쳤고ㅋㅋㅋ 진짜 트렌디세터들이얏ㅋㅋㅋ
인스타 하시면 주소 좀 알려주시면 안돼나요?
└ 안돼나요(X) 안돼나요(O)
그때 비행기 탑. 눈 감았다 뜨니까 LA. 월홀인줄
월홀 0222 ㅋㅋㅋㅋㅋㅋ일상생활 가능하냐?ㅋㅋㅋㅋㅋㅋ

화각, 점점 멀어지더니 누군가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된다.
까드득까드득 사탕 깨무는 소리 선행.

2. 하와이 오아후섬, 프라이빗 비치 / 오후

미간을 살짝 잡으며 울음 참는 정우의 모습을 핸드폰 영상으로 보고 있는 원주민꼬마.
우물우물 사탕을 깨물어 먹고 있는 원주민꼬마.
앞선 인터뷰가 무색하게 새파랗고 넓은 바다 앞에서 모히토와 함께 휴식중인 정우.
커다란 비치를 전세라도 낸 듯 홀로 선 베드에 누워있는 정우의 여유 만만한 표정.

정우 아저씨. 굿 록킹. 그치?

정우의 말에 씩 웃으며 바라보는 원주민 꼬마.
정우, 테이블 위에 있던 캔디를 까서 건네며

정우 이게 임마. 페인트 사탕이라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인기 짱이야.
원주민꼬마 (못 알아듣고 우물우물)
정우 두유 노 BTS?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고개 돌리는 정우. 원주민 복장의 원주민1이 전사라도 되는 양, 몽둥이를 들고 정우를 노려본다.

원주민1 (무섭게, 원주민어) 메이아이! 키아이 이 쿠오마우 니호!!

우르르르 몰려나오는 원주민들. 우락부락. 하나같이 험상궂다.
그러자 갑자기 사탕을 떨구고는 원주민1에게 달려가는 어린 꼬마가 아빠를 향해 씩 웃는다.
새파랗게 물든 입안.
화가 난 채 걸어오는 원주민들을 보며 긴장하는 정우.
반대편에서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또 다른 원주민 마크.

마크 브로! (빨리 오라 손짓까지 하며) 위키위키!!
정우 아.. 씨.. 미치겠네... (모히토를 원샷하곤) 위키위키!! (긴박한 음악 시작되며)

꿀깍... 숨을 삼키더니 순식간에, 뒤돌아 뛰어가기 시작하는 정우. 원주민1이 그의 뒤를 쫓는다.
나무숲을 헤치는 정우의 다급한 발걸음. 원주민1 역시 바짝 그를 따라간다.
정우가 달리는 속도의 두 배는 이상 되는 듯한 다부진 원주민1의 육상!
원주민들에게 쫓기던 정우가 결국 붙잡힌다.
마크가 대로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정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망신창이가 된 정우가 불쑥! 수풀 사이에서 튀어 나온다. 무릎까지 올라온 조리 슬리퍼를 길가에 내다 버리고 지프차에 올라탄 정우. 마크가 급히 공항으로 출발한다.

3. 하와이, 공항 앞 / 오후

끼익-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도착하는 지프차. 정우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조수석에서 내린다.
내리는 순간, 정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으면 햇빛에 반짝이는 듯 완벽한 파일럿 풀 착장.
모자까지 고쳐 쓰는 정우의 빛나는 모습. 어깨에 달린 견장도 한 번 매만져준다.

뒤돌아 차에 기대 선 마크에게 여유롭게 팔러 뭉치를 건네는 정우.

정우 (영어) 고마워. 덕분에 안 늦었네.
마크 (영어, 받으며) 땡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팔뚝을 만지며)
나도 오늘 반차내야겠어. 윗통 까고 다니니 자꾸 모기가 물어싸서...

그렇게 돌아서려다가 아차차...

정우 (영어) 마크. 아까 그, '이호아 메이아이 키아이 이 쿠오마우 니호!!' 무슨뜻이야?
마크 (영어) 오 마 브로... (근엄) 애한테 자꾸 사탕 주지 말라고. 이빨 썩으니까.

아~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 정우. 조용히 그 말을 읊조린다. '이호아 메이아키아...!!'

4. 창공, 비행기 조종석 / 오후

insert. 유유히 창공으로 진입하며 이륙에 성공하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정우. 그 옆으로 부기장의 모습도 보인다.
탁 트인 푸른 하늘과 평화롭게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는 정우. 깊게 심호흡을 한다.
아래로 멀어져 가는 하와이 섬 보이고.. 미소 번져 오르는 정우의 표정.
실제의 기내방송 시작하는 정우.

정우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을 한국항공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한국항공
499편입니다. 오늘 항공상의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정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덜컹)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비행기 현재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불안감 스쳤다가 웃음 터진 승객들의 모습.

정우 (미소)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릴 가장 한 정우입니다.

푸르게 펼쳐진 창공. 그 위로 계속되는 정우의 라디오 음성 위로 타이틀이 떠오른다.

title in _ 파일럿

안전상태 그대로, 커서가 깜빡이면서 '꼭로합니다. H기장의 이중성과 실제...' 로 시작되는 문구가
나타난 뒤 '등록' 된다. 잠시 뒤 '삭제' 버튼으로 향하는 마우스 커서.
띠링-띠링- 유퀴즈 몽타주에서 흘렀던 댓글 오르는 효과음 들린다.

삭제된 댓글입니다.[6]

ㄴㅇㄷ

ㄴ 뭐야? 미친

ㄴ 사비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ㄴ 댓글 뭔데? 누가 쪽지 줌

ㄴ 나도

ㄴ 나도 줌

[삭제된 댓글입니다] 문구로 줌하는 카메라.

대댓글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5. 호텔 뷔페 / 밤

거대한 홀에서 [공군사관학교 - 114회 성무인의 밤] 모임이 진행 중이다.

군복을 입은 채 접시에 음식을 담은 군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앳된 얼굴의 생도들도 눈에 띈다.

정우의 유퀴즈 방송분을 핸드폰으로 감상하고 있는 일부 생도들의 모습.

그때, 한국항공 유니폼 입은 채 뷔페 입구로 들어서서 정우.

별 단 간부급 군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생도들만 모인 테이블, 항공사별로 파일럿들이 나누어 앉은 테이블 등이 보인다. 일부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우에게 방송 잘 봤다는 등 아는 체를 한다.

상대방의 직급에 맞춰 리액션 하는 정우. 모르는 사람들도 정우의 등장에 힐끔힐끔..

이때 정우에게 다가와 셀카를 요청하는 여후배. 같이 촬영해주는데 과하게 눈이 커지고 입술에 붉은 필터가 입혀진다. 좋아하며 멀어져가는 여후배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는 정우.

이때 뒤에서 나타난 **현석**, 정우와 스타일이 매우 비슷한데 정우를 향해 꾸벅 깊게 인사를 한다.

현석 (능청스레) 선배님~ 안녕하세요.. 창공을 날아올라, 독수리 57기 서현석입니다.

정우 (손으로 때리는 제스처) 까불어요 또...

정우가 지나치고 정우의 제스처를 따라하는 현석. 중얼, 멋있어.....

정우를 테이블로 이끄는 현석. 의자까지 빼주며 상전 모시듯 대접한다.

정우가 앉는 순간 눈빛, 손짓으로 인사하는 공사 동기들 **성재(남)**, **지영(여)**.

현석 역시 주인공이라고 늦게 오셨습니다.

정우 (웃으며) 비행 연착 돼서 늦은 거다. 주인공은 무슨..

성재 어디?

정우 호놀룰루.

현석 (아는 척) 아.. 대니얼K. 이노우에 공항 귀약이죠.

저도 지난주에 비 엄청 와서 랜딩할 때 죽을 뻔 했어요.

지영 한에어가 호놀룰루도 가?

현석 (보다) 저희도 요즘에 국제선 많이 생겼거든요?

정우 (웃으며) 지영아. 현석이도 이제 기장이야.

지영 오~ 우리 현석이 많이 컸네? 첫 기내 방송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이야.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 듯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는 정우와 성재.
대조적인 현석의 반응.

지영 긴장해서 염소처럼 말하다가 마이크 떨어뜨리고 비명 지른 게 그대로 송출. 하
이재킹 당한 줄 알고 객실은 아수라장. 9시 뉴스에도 나왔지?
성재 유튜브에도 있어. 웃음참기 췌런지. 그거 보면 다 터짐.
현석 아,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지, 어?
지영 너 아직도 여자기장들만 보면 니 밥그릇 뺏는 거 같다 그러니?
현석 (살살 굶으며) 국민 세금으로 훈련시켜 왔더니 중국으로 날르는 건 매국노 아닌
가?
지영 야, 능력 따라 대우 해주는 데 가는 게 뭐가 나빠!

티격태격하는 현석과 지영을 여유롭게 관전하듯 바라보는 정우.
바지 주머니 속, 삐죽 나온 정우의 핸드폰이 무음 상태로 울리고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우.

6. 호텔 뷔페 일각 / 밤

나란히 줄을 선 정우와 현석. 정우가 접시를 집으려고 하자 대신 집어주는 현석.
정우가 젓가락을 집으려 하자 대신 집어주는 현석.
음식을 뜨려고 하자 대신 집어 정우 접시 위에 올려주는 현석.

정우 허 참... 오바는... (그러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현석 선배님, 올해는 뭐.. 얘기 없습니까?
정우 뭐?
현석 가끔 한에어에서 한국항공에 파견 올리잖아요. (배시시) 저도 좀 태워주십쇼.
정우 글썄. 나는 회사에서 하는 일 잘 몰라.
현석 에이.. 한에어도 소문 다 났어요. 한정우 조종사가 노상무라인에 운항본부장하고
도 형님형님하는 아삼육인 거.
정우 (웃고) 조종사가 무슨 라인이 있냐. 어디서든 비행만 잘하면 되지. 어차피 같은
계열사 한국항공이든, 한에어든 뭐가 중요해. (머리 가리키며) 이거 좀 굴리지
마 줘.
현석 (뻘쭙) 에앵?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건데?
정우 ..나한테 배웠다고?
현석 선배님.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세상은 공평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오파는 그냥 아는 교회 오파다.
정우 세 개라며..

정우 물끄러미 현석을 보다가 말을 말자.. 싶어진다.
여유롭게 접시를 들고 돌아 나오는 정우. 이때- 여기저기서 카톡- 카톡- 카톡 소리가 들려온다.
홀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핸드폰을 들어 바라보고..

이내 현석의 핸드폰이 울리자 정우 역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한다.
부재중 전화가 열 통 가까이 찍혀있다.

운항본부장(E) 해고 대상이 되셨어요.

7. 한국항공 회의실 / 오전

한국 항공 운항본부장과 고문변호사가 정우 앞에 앉아 있다.
운항본부장이 정우에게 서류를 돌려 내민다. [고용해지확인서] 제목..

고문변호사 (딱딱하게)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우 (안 믿는다) 뭐야? 사내 이벤트 이런 거야? (아하) 아, 일반인 예능 뭐 그런 거
구나? 어디? 공중파? 케이블?

고문변호사 ...맨 뒤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우 (자신 없게) 유튜브?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

정우 (떠보듯) 에이...아.. 갑자기..왜 그래 형~ 형~ (보며) 지난주에도 우리 어? (잔
터는 시늉) 좋았잖아요. 예?

고문변호사 (딱딱하게) 한정우씨. 오늘 안에 서명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냐? 설마 그럴 리가...눈치를 살피던 정우.

화분이며 회의실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천장의 CCTV를 발견하고

태도가 돌변해서 서명을 할랑...말랑...또 할랑...말랑...약을 올리는데

정우, 기분 좋게 서명을 딱!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정우 (다 안다는 듯) 몰래 카메라네~ 저 저 안에 지금 저거 깜빡거리잖아? 응?
OK예요? 어떡해? 한 번 더 가?

8. 포장마차 / 저녁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셔츠 차림의 정우. 그새 초췌해져 있다.

insert. 계란말이에 케첩으로 '서비스' 라고 쓰는 클로즈업.

아주머니가 와서 계란말이를 내주다가 아이고! 끝에 하나를 떨어뜨리고 하나 떨어져부렸네~

하더니 발로 툭 쳐 날려버리고.. 맛있게들 먹어요~ 테이블 위에 계란말이를 두고 간다.

케첩으로 서비스 라고 적혀 있는 계란말이를 허탈하게 바라보는 정우. 하! 식바..식바.....

옆에 앉아있는 한국항공유니폼 입은 성재.

성재 (한숨) ...진짜 몰랐어?

정우가 바라보는 테이블 위 핸드폰에서 걸걸하게 취한 노상무 목소리 흘러나온다.

노상무(E) (취해서 길길) 이야.. 이번 애들은 진짜 얼굴 하나도 안 보고 뽑았나부다.
스튜어디스랑 조종사랑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정우(E) 에이.. 상무님... 무슨 소릴 하시는 거예요?!

안개 같은 머릿속. 대화에 빨려 들어가듯 핸드폰을 바라보는 정우.

9. 호프집 / 저녁 (회상)

승무원 30~40명의 회식자리. 캐주얼한 분위기의 펍.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들과 남녀 조종사들이 한 대 섞여 술을 마시고 있다.

#7의 운항본부장, 노상무, 정우 외 남녀신입들이 앉아있다.

취해 있는 노상무(남, 50대) 그 옆에 앉아있는 사복 차림의 정우. 역시 취해있다.

노상무 (슬쩍 눈치 보며) 이거 내가 실수했나?

정우 요즘 말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이 몇인데.
판 맘먹고 (핸드폰 가리키며) 녹음기라도 켜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그러신다.

cut to.

포장마차.

아뿔싸, 좌절하며 이마를 탁 치는 정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런 정우를 바라보는 성재.

정우(E) 취하셨나보네.

노상무(E)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유난스럽게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세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cut to. 호프집. (회상 - 시간경과)

땅!!! 빈 술잔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노상무. 늘어난 술병.

노상무 (잔뜩 취해) 얼굴은 진짜 하나~도 안보고 술 잘 먹는 거 보고 뽑았나부다.
어떻게 조종사가 스튜어디스보다 예쁘냐? 하하하!

꼭 집어 지적당한 스튜어디스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노상무를 본다.

정우 상무님~ 상무님!!!

움짔하는 노상무.

정우 (잔뜩 취해) 비행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정도면 탑이쥬~ 판 항공사 캐빈들에 비

하면 진짜... (여자신입들 바라보며 윙크 윙크) 이렇게 아름다운 어? 꽃다발 같은 우리 승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쩌라고.. 짜증난다는 듯 정우를 바라보는 일행들.

정우 자, 상무님. 막잔 하시죠! 여기 앞에 우리 승무원분께서 한 잔 드린답니다.

앞을 바라보며 윙크윙크 마구 날리고, 맞춰달라는 제스처어 보이는 정우.

채우다 못해 넘치는 위스키잔.

랑-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도로 놓이는 위스키병.

정우 아이고~ 아주 애사심이 넘치다 못해 상무님에 대한 애정도 넘치네~ (신나서)

왁자지껄 시끄러운 분위기 안.. 계속 주접을 떨며 목소리를 높이는 정우의 나대는 모습.

후욱- 카메라가 앉아 있는 사람들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테이블 어딘가 놓인 핸드폰.

투명한 유리 테이블 밑에서 올려다보면 REC 버튼이 빨강게 깜빡이는 중이다.

10.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 주방 / 아침

‘유퀴즈온더블록’ VOD 서비스 자신의 편을 눌러보는 정우.

썸네일은 유재석과 한바탕 웃고 있는 정우의 얼굴.

그러나 그 위로 [저작권사의 요청으로 인해 본 영상은 이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뜨고..

한숨 내쉬며 앞을 바라보는 정우.

음성변조에 모자이크 처리까지 된 누군가 얼굴 아래 각도로 앵글 잡힌 채 인터뷰 하고 있는 중이다.

음성(F) 수치스러웠죠.. 내가 이러려고 수년을 훈련하고 승무원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 관계자분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눈물이 나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 숙이는 누군가.

썸룩썸룩 표정 일그러지는 정우.

식탁 앞에서는 수영이 유치원 갈 준비를 마친 시후의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있다.

시후 엄마. 자괴감이 뭐야?

수영 얼른 밥 먹어.

정우의 모습을 힐끔 쳐다보는 수영.

TV 화면 속, 생방송 뉴스.. 검은 색 차가 한 대 도착하고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노상무.

그 화면 밑으로 흘러가는 기사 헤드라인들..

[한국항공 노상태 상무, 성희롱 파문, 경영일선 물러나..][한국항공 재정악화, 인원감축..전문경영인 체제 가능성은?] [한국항공 주식 폭락] [관계자들 문책과 경질..]

휠체어에 타려던 노상무가 바닥에 나뒹군다. 속사포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코리아휠체어 주식 폭락] [캠프로 주식 폭등..].....

정우 저러고 자기는 한 1년 있다 복귀하겠지..

곧이어 흘러나오는 음성 변조된 정우의 목소리. 멍멍댄다.

소리(E) (음성변조) 비행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정도면 탑이쥬~ 탄 항공사 캐빈들에 비하면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어? 꽃다발 같은 우리 승무원들한테!

정우 (문득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나는 그냥 예쁘다고 한 거잖아. 예뻐서 예쁘다고 한 게 뭐? 왜?

정우가 열 받은 듯 TV를 끄고 소파에 몸을 기댄다. 힐끔, 수영 쪽을 보던 정우.

정우 걱정할 거 없어. 항공사야 많은데 뭘. 방송 출연은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수영 시후야, 다 먹었으면 일어나. 어린이집 버스 올 시간이야. (나가려는데)

정우 필라테스도 들렀다 와?

수영 필라테스 관두지 육 개월 됐거든?

정우 (머쓱) 아, 그랬나? 올 때 소고기 좀 사와. 오랜만에 갈비찜 먹고 싶다.

수영 다녀올게.

정우 (웃으며) 시후야 사랑해~

수영이 시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11. 구직 몽타주

#. 주상복합 아파트, 서재

당차게 벌떡 일어나는 정우. 책상에 앉아 열심히 항공직종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한다.
부산하게 여기 저기 클릭하는 정우의 손길.

정우(E) 네. 선배님.. 예. 잘 지내시죠?

#.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

식탁위에서 열심히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고, 영문 이메일을 쓰는 모습 컷컷..

정우(E) 어, 지영이나? 상하이 잘 들어갔고? 아... (하다) 그거 괜찮아.
땀 게 아니고 혹시.. 그 너희 차이나항공 계열 쪽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여유로움이 사라지는 정우의 모습. 물을 마신다.

정우 아 형님! 독수리 54기 한 정우입니다. 에~ 저번에 형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정우 저 한정우예요. 전역하던 날 중국집 앞에서 뵈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정우 (하하 웃으며) 아, 충성! 교수님..(사이) 아..... 돌아가셨다고요?

점점 표정 변하는 정우. 날리는 이메일 슈웅- 슈웅- 날아가는 소리. 끝내 망연자실한 표정..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현석]이다. 단박에 받는 정우.
딸랑거리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목소리가 넘어온다.

현석(F) (건방 떨며) 아.. 선배님. 전화하셨었네요?
정우 ... (어이없고) 전화.. 지난 주 금요일에 했는데..
 너희 경력직 이력서 보낸 거 봤어?
현석(F) 아.. 네. 인사과에 토쓰했는데... 저희 당분간은 부기장만 충원한다더라고요.
정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부기장을..
현석(F) (말 자르며) 그렇죠? 근데요.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녹음파일이요.. 한정우 목소리인 거 이미 다들 알아요. 블랙리스트 뺐다고요.
정우 ...어?
현석(F) 암튼.. 힘내십쇼. 조종사가 라인이 뭐가 중요해요.
 어디서든 비행만 잘 하면 되는 거지.

현석의 말에 굳는 정우의 표정.

정우(E) 진짜.. 와.. 다들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12. 한강둔치 주차장 / 밤

정우의 SUV 차량 안. 야경이 빛나는 한강을 보고 앉은 운전석의 수영. 조수석의 정우.

정우 잘 나간다 싶을 때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들러붙더니.
 솔직히 나 인간들 안 믿었던 거 알지? 진짜 가족 빼고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
 그치 수영아?

정우의 말에도 저 멀리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는 수영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다.

정우 시후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수영 ...(미소) 자랑스럽지.
정우 아니 그냥 이 참에 해외로 나갈까? 너도 외국 살고 싶어 했잖아.
 외항사면 연봉도 더 쎄고. 너도 쇼핑 실컷 할 수 있을 텐데..
수영 ...(미소) 쇼핑 좋지.
정우 하와이 어때?
수영 오빠. 우리 이혼하자.
정우 응, 이혼도 좋다. 이혼.....(하다가 웅?) 어?

그제야 덜컥 말문이 막힌 채 수영을 바라보는 정우. 하지만 수영의 표정엔 미동의 변화조차 없다.

정우 잠깐만.. 잠깐.. (보고) 뭐? 왜? (하다) 설마.. 너 나 째려서 이러냐?
수영 맞아.
정우 맞긴 뭐가 맞.. 맞다고?!

눈앞이 핑핑 도는 정우, 평정심을 찾으려 애쓴다.

정우 야.. 침착하자. 우리 지금 힘든 상황인 거 맞거든?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어른답게 대화를 해보자.
수영 (침착하게) 오빠랑 이혼하려고 맘먹은 지 오래 됐어.
 일까지 짤렸다니가 더는 못 참겠네.
정우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진짜 왜 이러냐.
 (고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터지는) 대체 뭐얼?!'

머리를 쥐어뜯으며 좌절하는 정우.

정우 (헐끔) 야.. (의심) 너.. 설마... 남자 생겼냐?!

철컥. 차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에 움찔하는 정우.

수영 내려.
정우 (기가 찬) 하!
수영 집도 차도 다 내 명의잖아.

cut to.

차에서 내린 정우.

멀리 달려 나가는 수영의 차.

홀로 남겨진 허탈한 정우의 표정 위로.

정미(E) (속삭이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약 하고 오셨어요?

13. 정우의 본가, 거실 / 밤

화면 가득 정미의 얼굴 보인다.

정미 (속삭인다) 아 메이크업은 처음 받아보시는구나. 저희 아이돌분들도 많이 오시고
 톱스타분들도 오시고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원래 예약 안하면 안 되는데 마침
 시간이 비어서. (손등으로 화면 터치터치) 오늘 어디까지 바르고 오셨어요? 풀메
 이크업이요? 췌얼인 줄 알았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 우선 지우고 기
 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팔 걷으며 웃기 소리 섬세하게 담아내고 손가락 푸는 정미.
클렌징 오일을 꺼내더니 손톱으로 토토토토 두드리며 어지럽게 흔들어대다가 화면을 향해 뽀뽀뽀
클렌징 오일을 뿌리고 손으로 문질문질한다.
토너 꺼내서 화장솜에 피욱피욱 다시 화면을 향해 팡팡팡팡!
로션 듬뿍 짜내서 손에 문히더니 비비적 후 다시 화면에 탁탁탁탁! 원맨쇼.

정미 (속삭인다) 피부과 다니세요? 아뇨.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피부과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서비(사자후)~씨팔 감짜기야!!!!!!

언제 들어왔는지 서서 정미를 바라보는 정우.

정우 뭐하냐..

정미 아 왔으면 왔다고 기척이라도 좀 내주든가!!!

14. 정우의 본가, 거실 - 주방 / 밤

거실 한 켠에 놓인 1인 방송 장비들.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뚱하니 놓인 커다란 거울과 거울 주변에 반짝이는 분장실 조명.
근처 벽에 종이가 하나 걸려있고 不狂不及이라 적혀있다.
자막, 미쳐야 미친다
정우가 못마땅한 듯 정미를 보면, 정미 역시 입이 뗫발 나와서 노트북을 클릭, 클릭하고 있다.

정우 (할말 하얏) 참.. 별.. 아휴..

바닥에는 정미가 갈아입은 옷들이 허물처럼 늘어져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더미다.

정미 왜 왔어?

정우 내가 내 집 오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엄마 어디 갔어?

정미 (짜증난다는 듯) 성지순례 갔잖아. 넌 엄마랑 통화도 안하냐?

정우 아.. (하다.. 그랬나?) 어디로? 바티칸? 산티아고?

정미 아 몰라. 관심 좀 가져. 이러니까 아들새끼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 그러지.

궁얼궁얼...지도 모르면서...캐리어를 옮기는 정우.

힐끔 정우가 끌고 온 짐을 바라보는 정미. 가재미눈을 뜨고 상황파악을 하는 정미.

정미 드디어 새언니가 이혼 하제?

정우 아니.. 그냥 잠깐 싸운 거야. 나 잘린 걸로 좀 예민해서.

정미 너 잘렸어? (하다 '혈') TV에 그거 너구나!! 인터넷에서 난리였는데!! 대박..
어쩐지 그 꼰대 말투를 딱 듣는 순간 내 뭐가 스치는 것 같더라니..

정미가 신이 나서 핸드폰을 들고는 음원을 찾아서 듣다.

누군가 비트에 맞춰 랩으로 만든 정우의 음성변조된 목소리.

(E) ‘이렇게 아름다운 어? 어? 꽃, 꽃, 꽃다발 같은 우리, 우리, 우리 승무원들한테!’

정미, 리듬을 타며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신다.

정우 (폭발 직전) 너는 오빠가 사준 집에 살면서 예의와 고마움이라는 게 없냐?
세상천지에 나 같은 오빠가 어딴어?

때 되면 용돈 줘..었지 해외여행도 보내 줘.....있고

정미 줘...있잖네 시팔.. 빌라 하나 해준 걸로 유세는..

TV까지 기어나가서 얼굴 팔고 다니더니 찢리고 이혼이나 당하고.. 애 아빠가 돼
서 잘~ 하는 짓이다 응??

정우 (열받) ... 야.

정미 (그치치 않고) 난 새언니 이해 돼. 시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벌써 소문 짝 낫
을 텐데 창피해서 유치원은 어떻게 다녀? 엄마는? 나는?

정우 (폭발) 야!!!

정미 (밀리지 않고) 왜???!!!

정우 ...이혼은!!! 아직 안 했거든??

화난 채로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가는 정우.

15. 정우의 본가, 정우 방 / 밤

침을 들고 킁킁 방 안으로 들어온 정우. 방 안을 온통 뒤덮고 있는 임영웅의 사진이며 등신대를 보고
기겁한다.

나가서 따지려다가 (E) ‘이렇게 아름다운 어? 어? 꽃, 꽃, 꽃다발 같은...’ 소리에 돌아서는 정우.

침대 하나와 책상, 옷장이 간신히 있는 방 안.

임영웅 등신대에 외투를 걸고 침대에 누워 책상 아래에 처박힌 정우의 잡동사니를 발견한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모 안자와 정미, 그리고 정우의 가족사진.

그때,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임영웅 등신대가 정우의 위로 쓰러진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머리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좌절하는 정우.

16. 한에어 면접실 / 낮

중역 서넛을 필두로 중앙에 노이사(여, 50대)가 앉아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 면접석에 앉아있는 정우. 경력직 파일럿을 뽑는 자리다.

노이사가 매의 눈으로 쪽 면접대상자들을 훑어본다. 초조한 표정의 정우가 눈 마주치자 썩썩한 미소
를 짓는다. 그러나 무시하고 고개 돌리는 노이사. 그 옆에는 새로운 파일럿 후보 슬기가 앉아있다.

노이사 윤슬기씨. 미국 앰브리리들에서 수학하셨네요?

동일 기관 교관도 2년 하셨고.. 유나이티드 7년에 제트에어는 교사하셨고.....

슬기의 이력이 불리자 흠칫 놀라는 듯한 주변 면접자들 분위기. 정우 역시 슬기 쪽을 바라본다.
다부지고 야무진 인상의 슬기. 면접에 응한다.

슬기 네. 미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노이사 근데 왜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좀만 버티시지.
 미국에서 기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슬기 고향인 한국에서 자리 잡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종차별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한에어중역1 (끄덕) 경력이 좀 많네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에두른 질문. 슬기는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슬기 네. 5년 뒤면 마흔입니다.

당황하는 분위기 속..

슬기 (미소) 결혼계획은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없고 있어도 결혼 안 할거구요.
 그렇다고 비혼모로 살 계획도, 난자를 얼릴 계획도 없습니다.

슬기의 대답에 놀라며 결눈질 하는 정우.

슬기의 대답에 티는 내지 않지만 알게 고개를 끄덕이는 노이사.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노이사 한 정우씨?
정우 (바짝 기함들어서) 네.
노이사 공군사관학교출신이지요.
정우 네. 수석으로 졸업했고, 공군은 소령으로 전역...
노이사 소령으로 전역했고 공사출신?
정우 바로 항공사 3사에서.....
노이사 음~ 한국항공.
정우
노이사 네.. 알겠습니다.

싸늘한 분위기. 노이사가 시선 돌리는 이 때 갑자기 일어나는 정우.

곧 사활을 걸었다는 마음으로 벽면을 응시하며 힘차게 노래를 시작한다.

웅장하고 장엄한 배경음까지 깔리는 듯.. 희미하게 빨간마후라가 날리는 색감도 입혀지는 듯..

정우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 이어 받아서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슬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지? 싶은 얼굴인데... 이내 언젠가 부턴가 노이사를 필두로 짹.. 짹.. 조용히 박자를 맞춰주는 박수소리가 흘러나온다.

더욱더 마음에 취해 울컥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마친 정우.

잠시의 정적. 노이사가 해맑게 웃으며 마치 오디션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신나게 박수를 친다.

노이사 브라보!!

노이사가 박수를 치자 엉겁결에 따라서 박수를 치는 중역들. 뿌듯한 정우.

노이사가 만면에 미소를 지은 채 정우를 바라본다.

노이사 미스터트롯 나가셔야 되겠네. 제가 꼭 문자 투표 할게요.

끊임없이 물개박수를 보내는 노이사. 그제야 찜찜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우.

현석(E) 학벌도 수완도 좋은데 딸이라서 저가항공사 받고 한량 아들은 대형항공사.

17. 한에어 옥상 / 오후

말을 이어가며 턱... 정우와 반대로 가르마를 탄 현석이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우에게 건네자, 받아서 들어주는 정우.

역전된 관계... 굽실대며 괜히 현석 눈치를 보게 되는 정우.

현석 노이사 그 여자... (고개를 절레절레) 맺힌 게 장난 아닐 거예요? 그쵸?

정우 ... 응?

핸드폰을 건네는 현석. *한국에어* 노정욱 상무 '노문영 한에어 이사와 야구장 나들이'

노상무가 풍선으로 노이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알아차린 노이사가 돌아보자 모른 체한다. 씨발새...ㄱ...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표정 관리하는 노이사의 짧은 동영상.

현석 남동생이 한국항공에서 실수하고 자빠진 걸로 지금 물 들어온 거죠.

한에어 물갈이부터 해서 치고 올라갈 생각인거 같더라고요.

정우 아...

현석 고래 싸움에 우리 같은 새우들이 등터지지..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어요.

현석이 내뿜는 긴 담배연기. 정우가 무슨 뜻인가.. 싶어 현석을 바라본다.

현석 여자 조종사들 비율.. 5년 내에 5:5 목표로 올린답니다.

그마저도 노이사가 사석에서 여자 아니면 안 뽑는다 했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 돼요? 실력을 보고 뽑아야지, 여자라고 뽑히는 거면 역차별이죠.

흔들리는 정우의 동공.

현석 어떡해요 선배. 희망이 없네?

18. 가정법원 앞 / 오후

문자 수신 진동소리 선행되며 핸드폰 화면 클로즈업. 면접 결과발표 문자. 불합격이다.

판사(E)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는 매 토요일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정우, 택시에 오르려다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수영을 본다.

허.. 어이없는 정우의 표정.

F.O.

19. 정우의 본가, 정우 방 / 밤

동영상 1 검색어 ‘사람이 싫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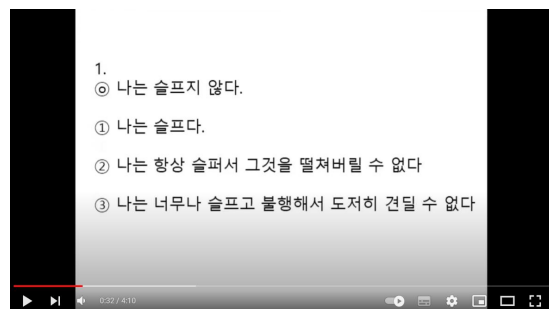
법륜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법륜스님 ...만나면 그저 뭐 오는 사람 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cut to.

동영상 2 검색어 ‘우울증’

우울증자가진단.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cut to.

동영상 3 검색어 ‘삶에 지칠 때 위로’

감성적인 화면과 함께 음악이 흐르며 화면 가운데에 글자가 뜬다.

나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네게 고맙다.

쉽지는 않겠지.

최악의 경우 이대로 지내면 어쩌냐!

나는 네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침대에 모로 누워 훌쩍이는 정우.

바로 그때 유튜브 홈 화면에서 정우의 눈길을 사로잡는 썸네일.



벌컥 방문이 열리며 방 불이 켜지고 모습을 드러낸 정미가 허리가 꺾여 앉은 사람처럼 놓여 있는 임영웅 등신대를 보고 화들짝 놀란다.

모양새를 보아하니 정우가 친구 삼아 한잔하기라도 한 듯 앞에 술잔이며 술병들이 놓여 있다.

정미 (냄새..) 뭐야. 술병이라도 었었어? 얼마나 마신거야.

정우 왜?

정미 나와. 치킨 왔어.

닫히는 방문.

훌쩍 훌쩍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정우.

또다시 벌컥 열리는 방문. 또 등신대를 보고 놀라는 정미.

정우 (짜증) 아 왜! 왜?? 왜???

정미 닭다리 내 꺼다.

다시 닫히는 문.

정우 야!!! 한정미!!! 야!!! 너 이리 와봐!! 야!!!!!!!!!!!!!!

발소리 나더니 방문 열고

정미 아 왜?! 뭐?? 왜???

정우 불 꺼.

정미, 바닥에 놓여있던 물이 1/5정도 담긴 패트 병을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린다.

중얼중얼, 붕신새끼가 뒤질라고.

터벅터벅 방 불을 끈 뒤 이어폰을 끼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는 정우.

cut to.

동영상 4 검색어 ‘죽는 법’ 먼저 입력되고 ‘안 아프게’ 추가된다. ‘안 아프게 죽는 법’

비장한 음악과 함께 화면을 가득 채우는 패럴림픽 이미지들, 베토벤, 고흐..등등.

경상남도사투리와 표준어 억양이 섞인 투박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중년 남성의 음성이 시작된다.

마치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듯한.....

목소리(E) 죽고 싶어요? 힘이 됩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 같다. 팔다리가 없어도 돼. 안 들려도 돼. 눈이 안 보여도 돼. 살아만 있어. 그게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라 이겁니다.

insert. 책상 아래 정우의 가족사진.

20. 정우의 본가, 거실 - 주방 / 밤

고속촬영. 온갖 비애를 간직한 채, 소주로 병나발을 붙여 이어폰을 끼고 거실로 나오는 정우.

냉장고에서 새 소주를 꺼내 식탁 앞에 서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이어진다.

목소리(E)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힐끔 정미를 바라보는 정우.

어둠 속, 모니터 불빛과 몇 개의 조명에 의지해 ASMR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정미의 요란한 모습.

목소리(E) 그냥 하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뭘 할지 모르겠다고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시간에 그냥 하라고!!!

정미 (속삭이며) JUST DO IT.

비틀거리며 정미의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던 정우.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는 정미의 모습. 홀린 듯 그런 정미에게 집중하는 정우.

21. 정우의 본가, 거실 / 새벽

insert. 잠들어있는 정미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정우가 정미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소주병 다시 병나발 붙고.

다시 시작되는 비장한 음악, 결심한 듯 두 눈을 부라리며 본격적으로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는 정우.

정우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펼쳐지는 이미지들과 사운드.

유퀴즈 방송 장면. 이혼하자는 수영. 노상무와의 호프집. 시후의 얼굴. 거들먹거리는 현석의 모습. 면접 보는 슬기. 노이사의 박수.

정우 여자만 원한다고?! 뽕게 해주면 되잖아 여자!!!

지원서 경력 란을 수정하고 성별 여자에 체크하는 정우.

이혼하자는 수영. ASMR하는 정미의 모습. 현석이 ‘노이사가 사석에서 여자 아니면 안 뽕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면접 보는 슬기. 노이사의 박수.

점점 고조되는 음악. 절정에 이르는 순간.

22. 정우의 본가, 정우 방 / 아침

굿모닝~알람 소리와 함께

핸드폰 캘린더에 투데이가 이동한다. 정우의 스케줄이 보인다. 아르바이트 면접, 면접 결과, 선배와의 식사 약속, 대리, 지원서 제출 등등의 열흘 치 스케줄이 차례로 보인다. 마지막 투데이에 이르자 아무 것도 없이 비어있는 정우의 하루가 보인다.

알람을 끄자 또 다시 짧게 울리는 정우의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는 정우.

희뿌연 정우의 시야 속 또렷하게 보이는 ‘합격’, ‘면접’ ...

통화 버튼을 누르는 정우.

핸드폰을 들고 터벅터벅 방 밖으로 나가는 정우의 모습.

정우(E) (잠긴 목소리) 여보세요. 경력직 파일럿 지원자인데 뭣 좀 여쭙볼 게 있어서요.

23. 정우의 본가, 거실 - 주방 / 아침

거실로 나온 정우.

화장실에서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정우 좀 전에 면접 보러 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사이) 사실 제가 저번에 1차 면접에서.....

그 순간, 정우의 머리를 스치는 오만가지 생각들...

정우 (다급) 아, 잠시만, 잠시 만요! (다시 핸드폰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온 정미,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 째 물을 마시던 정미

정우 (저 멀리) 정미야. 한정미. 전화 좀 받아봐.

응? 정미가 반응하고 쳐다보면 이어지는 정우의 원맨쇼.

정우 (여자 목소리) 한 정미입니다.

물을 품!!! 뱉는 정미.

정우 (여자 목소리)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사이) 문제없습니다.
(사이)네~ 그럼요, 잘됐네요. (사이) 네~

전화를 끊고 정미를 바라보는 정우.

정미(E) 니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24. 정우의 본가, 거실 / 아침

기함한 표정으로 정우의 핸드폰 문자를 바라보고 있는 정미.

[부기장 모집 서류전형 합격. 면접안내.]

소파에 앉아 있는 덩수룩한 수염의 정우와 서성이는 정미.

정미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경력 위조까지 해서? 야! 너 이거 범죄
야!

정우 (눈치) 그... 그거야 합격했을 때 얘기고.

정미 (핸드폰 들이밀며) 면접 보러 오라고 문자까지 왔잖아! 나보고 어찌라고!

정우 너한테 면접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물쭈물) 내가... 내가 직접.....

정적이 흐르고.

정미, 꿀꿀꿀 웃는다.

정우 나 당장 이 집 대출 이자 낼 돈도 없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는 정미.

정우 그러면 쫓겨나는 건 너도 마찬가지고. 시후도 못 볼 수 있어.

정미 (뚝) 다른 일을 해! 세상에 직업이 파일럿 밖에 없니??

정우 나 인터넷에 신상 털린 거 봤다며. 방송 화면까지 돌아다니고
연락이 하나도 안 와. 알바로는 양육비며 이자며 감당 안 되고.

미친 듯이 눈동자를 굴리는 정우.

정미 ...와 진짜. 오빠 니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갈 줄도 몰랐지만. (절레절레)

정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통장 니가 관리하고 있잖아. 그거 전세보증금은 되나..?

정미 (잠시 말문 막히는) 아, 뭐래..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노골적으로 시선 피하는 정미. 정우가 그 기세를 몰아 쪼기 시작한다.

정우 스트리트 엔터 상장할 때 몰빵했다. 지금 공모가에서 1/10로 떨어졌고.
맞아, 아니야?

정미 (책 바라보다) 니가.. 그걸... 그걸 어떻게...

정우 오랜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잘 생각해. 나 혼자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주식하다 돈 날린 거 엄마한테 물어버릴까?

정미 (이 악물고) 주식은 팔기 전까지 모르는 거 몰라?! 우리 애들 빌보드 오르면 주식도 오른다고.

정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집에 잘 붙어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정우의 말에 깊게 고민하는 정미..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데 마지막 발악.

정미 그래서 뭐?? 위장 취업을 하겠다고? 여장까지 해서?!

25. 정우의 본가, 거실 / 밤

탁탁- 거울 앞에 조명들이 켜진다.

진지한 얼굴로 거울에 비친 정우의 얼굴을 나란히 비춰보는 정미. 머리띠를 씌워 올백을 만든다.

정미 (속삭이며) 그냥.. 한번 해보기만 하는 거야 뭐..

정우 그래. 그냥 느낌만 보자는 거야.

정미 (속삭이며) 해보기만 하는 거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정우 그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속닥거려?

정미 (속삭이며) 직업병이야...ASMR...몰라? 바쁜 삶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트렌드.

정미를 속- 바라보는 정우의 황당해 하는 눈빛. 경쾌한 음악 시작된다.

cut to.

정우의 얼굴 위를 부산하게 오가는 메이크업 브러쉬.

허공위로 뿌옇게 부서지는 화장품 분말들. 정우가 눈을 꼭 감고 있다.

피부톤을 정돈하고 눈썹을 다듬는 정미의 손길. 곧 눈썹을 그려주고... 새도우를 칠한다.

cut to.

정미의 얼굴이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 정미가 팔을 걷어붙인다.

우드스틱을 라이트로 지진 후 집게손가락으로 능숙하게 꺼뜨린 뒤,

정우의 속눈썹을 바짝 올리는 정미.

아찔하게 올라가는 속눈썹.

마스크라가 정우의 속눈썹에 칠해지고.. 도톰한 입술에 고운 빛갈의 립스틱이 발린다.

빠히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던 정미.

클렌징 티슈 집어 들더니 정우의 얼굴을 박박 문지르며

정미 (왕짜증) 얼굴이 화장을 뺄어내나... 차라리 성형을 할래?
(더 세차게 문지르며) 넌 남들처럼 비상금도 안 빼돌려 놓고 뭐했냐?

cut to.

다시 완성된 듯, 정우의 얼굴을 확인하는 정미, 아리송한 표정.
생각난 듯, 거울 옆에 놓인 가발 하나를 들어 정우의 머리에 우겨넣는다.
머리칼을 잘 정리하고는 정우의 어깨를 톡톡 터는 정미.
도무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미의 복잡 미묘한 반응.

정우 역시 안 되겠지?
정미 (얼떨떨) 예쁘네.

다시 시작되는 경쾌한 음악.
정우, 거울을 바라본다.
누가 봐도 청초한 느낌이 드는 여성.. 정우가 앉아있다. 놀란 듯 바라보는 정우.
생경한데 싫지만은 않은 이상한 느낌이다.

정우 면접.. 한번 봐보기만 하는 거야 뭐..그치?
정미 ...

26. 변신 몽타주

#. 정우의 본가, 거실 / 오후

‘복-’ 도착한 택배 박스를 뜯는 정미. 그 안에서 가슴뿔과 골반뿔, 속옷, 여자 옷 등등이 나온다.
화면 바뀌면 정우가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을 가리고 서 있다.
그 뒤에서 정미가 열심히 손을 비비며 우주의 기운을 모은다.
양 손을 들더니.. 정우의 아래 등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미의 손.

정우 (숙인채로) 왜.. 브래지어를 하는 데.. 거기부터..
정미 .. (소곤소곤) 췌.. 옆구리살부터 겨드랑이살, 갈빗살, 안창살, 갈매기살까지.
모두 다 한데 모아야해.

마치 기체조와 마사지를 결합한 신들린 손짓으로 정우의 상체의 모든 살들을 끌어 모아주는 정미.
그 위로 누브라를 붙이고, 또 위로 일반브라의 후크까지 경쾌하게 채워준다.
워낙 가슴이 없다보니 과정은 그럴싸했으나 결과물이 형편없다.

정미 (심각) 야 진지하게 수술밖에 답이 없다. 할래?
정우 그냥 뿔 차고 브라하면 되는 거 아냐?
여자들 한 거 보니까 옷 입으면 잘 모르겠던데.
정미 (아!) 잠깐 있어 봐봐.

cut to 택배 박스 ‘복-’

그 안에서 나오는 가짜 가슴. 실리콘 재질로 촉감이며 형태가 진짜 가슴에 가깝다.

정미 트랜스섹슈얼들이 쓰는 거래. 다행이지.
 요즘은 이런 걸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정우, 가짜 가슴과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그 위에 옷을 입는다.

정우, 볼록한 가슴에 감탄하며 이리저리 포즈.

정미 좀 과한가?
정우 니 꺼보다 큰 거 같은데.....
정미 (절레절레) ..이거 참..(절레절레)...어떡하나...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우, 스스로의 모습에 감탄한 듯 포즈 취하는데 복실복실한 겨드랑이 털이 뽀뽀,
정미의 레이더망을 피해가지 못하는데.

#. 욕망샵 / 오후

베드 위에 얼굴에 팩을 올리고 누워 있는 정우.

큰 수건으로 네모나게 가린 가슴부터 허벅지 말고는 맨살이다.

시커멓게 털이 난 종아리. 그리고 정우의 양 겨드랑이에 복실한 털.

정미가 정우의 겨드랑이 털을 오만상을 찌푸리고 내려 본다.

커튼이 열리자 라텍스 장갑을 끼며 들어오는 젊은 여자 욕망전문가.

정우가 당황하며 양 날개를 접듯 양손으로 반대 겨드랑이를 가린다.

정우 (당황) 여자가 한다고는 말 안했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우.

정우 잠시만요! 많이 아픈가요?
욕망전문가 조금 따끔하세요.

건너편 방에서 울러 퍼지는 남자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다급하게 잠깐만!을 외치며 몸부림치는 정우.

정우 아, 으아니 잠깐 거기는 왜?? 전 겨드랑이인데요. 겨드랑이! (신음) 앓! 아앗!

커튼 좌악! 그대로 비장하게 정우를 두고 돌아서는 정미.

커튼 너머, 우두둑- 무언가 엄청난 것이 뜯겨가는 소리 위로.. (E)으아아악!! 정우의 비명이 들린다.

#. 대형마트 / 오후

사타구니를 의식하며 절뚝인 채 카트를 끌며 정미의 옆을 걷고 있는 정우.

울었던 듯 눈이 벌겋다. 수치심에 얼룩진 채 하반신을 한번 바라보는 정우.

정우 (절뚝절뚝) 앞으로 사우나는 어떻게 다니라고!!

대답 대신 두터운 투명 박스테이프를 하나 고르더니 정우에게 내미는 정미.

정미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인터넷에서 봤는데 배우들은 이런 거 쓴대. 일명.. 공사.

정우 ..공사?

정미 (정우 하반신 바라보며) 비상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

굳이 안 해도 티가 안날 거 같긴 한데..

정우 (거들먹) ..이거 참..(절레절레)...어떡하냐...테이프 공장을 차릴 수도 없고...

썩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는 정미.

절레절레하며 투명 박스테이프를 눈에 보이는 대로 집는 정우. (E)사장님! 이거 박스로도 팔아요?

27. 길거리 몽타주 / 오전

저 멀리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거리로 나온 여자정우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이 없는 듯 눈치를 보며 인파 속을 헤쳐 나가는 정우.

혹여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한 여자정우를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힐끔거리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여자정우.

그 순간,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누군가...

여자정우, 애써 외면하며 지나치려는데...

전단지 (전단지 내밀며) 여성 전용 OO 필라테스입니다~ 언니! 첫 달 50프로 세일 진행 중이세요.

정우(여) 네? 저요?

전단지 아우 언니는 어깨가.. 승모근하며.. 전체적으로 다부진 게 (목이랑 어깨 가리키며) 싸움 했으면 잘 하셨겠네. 첫날은 무료니까 한번 받으러 와 보세요. 요즘 일자 어깨가 대세인거 아시죠? 제가 고거 짝 정리해서 제니 어깨 만들어드릴게요 언니.

정우(여) (믿을 수 없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전단지 싸움 했으면 잘 하셨겠네?

정우(여) 아니 아니... 좀 더 전에.....

전단지 (전단지 내밀며) 여성 전용 OO 필라테스입니다~ 언니!

cut to.

돌아선 여자정우가 전단지를 잔뜩 들고 있다. 자신감이 붙은 여자정우의 표정과 걸음걸이, 몸짓... 절정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에 하늘로 흩뿌려지는 전단지들.

여성전용 헬스장, 여성전용 필라테스, 여성전용 마사지, 여성전용 고시원, 여성전용 찜질방, 여성전용 사우나 등등...

28. 한에어, 입구 - 로비 / 오전

한에어 본사 앞에 정장 치마 차림으로 선 여자정우.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건물을 올려다본다.
제법 능숙하게 하이힐 소리를 내며 솔더 핸드백까지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정우.
그 뒤로, **[한에어, 특별채용 조종사 면접장 안내]** 표지판이 붙은 게 보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정우. 월패드에서 한에어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면접에서 봤던 슬기가 메인 모델이다.

29. 한에어 면접 대기실 / 오전

급게 정장을 차려 입고 앉은 여장정우, 여자정우가 들어서자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듯하다.
힐끔 거리며 정우를 바라보는 다른 면접자들.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 앉는 정우.
썩- 벌리고 있던 다리. 다른 사람들이 민망한 듯, 눈을 내리 깐다.
그제야 자각을 하고 다리를 확 오므리는 여자정우. 이때, 정우가 출근중인 현석을 발견한다..
행여 자신을 알아봤을까 당황하는 여자정우의 표정.
번개라도 맞은 듯 굳어 버린 현석. 두 사람의 눈 맞춤 사이 잠시 오가는 이상한 침묵.
여자정우가 고개를 숙이더니 곧장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간다. 현석의 시선이 따라간다.
생각 없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다, 호다닥- 다시 뒤돌아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정우.
여자정우의 정체를 알아본 듯 가웃.. 하는 현석.

30. 한에어 면접실 / 오전

#16과 마찬가지로 주루룩 면접을 보고 있는 노이사 외 중역들.
여자정우를 필두로 양 옆에 남성면접자들이 앉아있다. 노이사가 힐끔 여자정우를 바라본다.

노이사 한정미씨?

긴장한 채 계속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정우. 다시 더 크게 노이사가 정우를 부른다.

노이사 한정미씨?

정우(여) (그제야) .. 네?

노이사 비행경력이 좀 있네요?

정우(여) (우물쭈물) ..네..10.....10년 뒤면....마...마호니입니다양.....

노이사 근데.. 못 들어본 항공사라.. 우카루카 라니펠루 에어라인. 남미 쪽인가요?

정우(여) 네? 아.. 아니.. 그..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노이사 섬..? 하와이나 괌은 아닌 거 같고 뉴질랜드 쪽인가요?

정우(여) 아니.. 그.. 팔리일리섬쪽에..

노이사 (지푸리며) 팔리일리? 태평양에 그런 섬도 있었나.

여자정우를 뵈히 바라보는 노이사. 관심을 거두려는 느낌에 여자정우의 입술도 바짝바짝 마른다. 약간 어색한 마가 뜨고 눈알을 굴리는 여자정우.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피치를 올리고 힘주어 외친다.

정우(여) 메이아이! 키아이 이 쿠오마우 니호!!
카카히아카! 카카히아카!! 위키위키!
(자막 / 이빨 씹으니까 사탕 주지 마!
빨리 빨리! 한국사람들은 빨리 빨리! 늦었어! 빨리빨리!)

느닷없이 낯선 언어에 노이사과 중역들의 관심이 다시 정우에게 향한다.
시선을 받자 자신감 있게 그들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노이사 .. 뭐예요, 방금 그거?
정우(여) 랄리일리어로 회사에 뼈를 묻고 싶단 뜻입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은 항공사였지만 비행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노이사과 중역들의 관심이 다시 정우에게 향한다.

정우(여) 싱글이구요. 결혼 계획도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결혼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아우 싫습니다!!!

대답하는 여자정우의 모습이 뽀샤시, 반짝거린다. 후후.. 재밌다는 듯 웃는 노이사.

31. 입사 몽타주

#. 병원, 검사실 / 낮
검사복을 입고 기계에 몸을 댄 채 촬영하고 있는 정미.
“바짝 붙이세요..” 촬영사가 지시하는 대로 더욱 몸을 짜부시키는 정미.

정미 (피식 피식 웃으며) 저 파일럿이에요. 멋있게 찍어주세요.
촬영사 .. (어쩌라고?) 예.

촬영사가 이상한 김새가 느껴져 검사실 밖으로 난 창문을 보면 정우가 지켜보다가 황급히 지나간다.
다시 돌아왔다가 여전히 자신을 쳐다보는 촬영사를 보고 다시 프레임 아웃하는 정우.

#. 병원 앞 / 낮
정미가 검사지를 정우에게 내민다. 검사지를 확인한 정우가 현금이 두둑이 담긴 흰 봉투를 내민다.
후- 붙어 안을 확인하던 정미. 만족스럽다는 듯 뒤돌아선다.

정우 주식 물 타기 하지 말고.

알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정미. 정우가 만족스럽다는 듯 검사지를 올려본다.

#. 정우의 본가, 거실 / 낮

ASMR하며 셀프 화장하는 정우의 모습 컷컷.. 엉망진창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트렌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조금씩 나아져간다.

#. 모형조종석, 심 안 / 오전

작은 모형조종석에 올라타는 여자정우. 훈련을 마치고 심 안에서 내린다.

내려가는 심 안으로 다음 차례인 슬기가 들어간다. 정우와 면접을 같이 봤던 그녀...

살짝 눈 마주치는 두 사람. 미소를 교환한다.

#. 한에어 / 아침

한에어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정우.. 아니, 여장한 한정미.

트렁크를 끌고 한에어 안으로 들어선다. 기분이 상쾌하다.

주변에 있던 한에어 직원들이 여자정우를 돌아본다.

32. 횃집 / 밤

새로 들어온 부기장들과 기장들의 회식자리.

건배 직전, 뒤늦게 도착한 여자정우. 하필이면 남은 자리가 현석의 앞자리라는 사실에 허둥지둥.

열심히 얼굴을 가리며 현석의 앞에 앉는다.

cut to,

모두의 잔이 한데 모였다가 각자에게 돌아간다.

“한에어의 새로운 조종사들을 위하여~” 건배제의와 함께 시원하게 들이키는 술잔들.

여자정우만 어딘가가 불편한지 살짝 잔을 내려놓는다.

귀신같이 그 모습을 보고는 여자정우에게 시비를 거는 현석.

현석 (실실 웃으며) 어? 첫 잔부터 밑 잔을 까는데?

정우(여) (입만 웃으며) 아까워서 아껴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정우가 할 수 없다는 듯 남은 술을 마저 들이키려는데.

현석 나 알죠? (의미심장하게) 분명히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여자정우, 동공지진.

순간, 잔을 낚아채가는 슬기.

꿀꺽꿀꺽- 그 술들을 모두 마셔버리는 슬기. 놀란 여자정우가 슬기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입을 닦고는 빈 잔을 탁. 내려놓는 슬기..

슬기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죠. 요즘은 이런 분위기 아닌 걸로 아는데요.

힐끔거리는 여자 파일럿들. 멋쩍어하는 현석.

이때, 현석 옆에 앉아있던 백기장이 슬기와 여자정우를 못마땅한 듯 바라본다.

백기장 이야. 이제 콧핏에도 꽃바람이 분다야. (비아냥)
 조종사들도 유니폼 이쁜 걸로 하나 새로 만들어 맞춰줘야겠어.
 하이힐도 하나씩 공용으로 지급하고.
현석 (눈치) 선배님..
백기장 아,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그 순간. 뻥 - 동시에 현석과 백기장 쪽을 바라보는 여자정우와 슬기.

백기장 똥똥하다 말해도 비하고 못생겼다 말해도 비하고 하다하다 이젠 예뻐서 예쁘다
 해도 비하래. (못마땅) 참.. 불편하고 예민할 것도 많아요.
 세상사는 게 이제 너무 어려워졌다니까.
슬기 알면 그만 하시죠?

회식을 하던 모두가 슬기 쪽을 바라본다.

여자정우에겐 어쩐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순간,

백기장 .. 뭐?
슬기 큰일 나는 거 아신다면서요.

집중되는 이목, 외장창 깨진 분위기.

기분이 나쁜 듯, 위 아래로 슬기를 보는 백기장.

백기장 나는 윤 부기장 같은 사람들 보면 갑갑하더라. 자기만 막 깨어있는 거 같고 그
 래?
슬기
백기장 윤 부기장. 도대체 예쁘다는 게 왜 문제야? 꽃처럼 예쁘다 하면 우리 때는 그게
 칭찬이었어. 안 그래? 그 말이 진심으로 기분이 나빠?

백기장이 근처에 있던 여자 기장들을 쳐다보면 난처해하는...헛갈려하는 모습...

슬기 기분 안 나쁠니다.

당황하는 사람들. 슬기를 쳐다보는 여자정우.

백기장 거봐. 이제야 좀 솔직해지네.
슬기 사랑하는 사람이 제게 그 말을 해준다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제 외모와 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제가 품평을 당하고 그 말을

당연하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기장 얼굴‘도’ 예쁘다는 거야. 얼굴‘도’.

슬기 업무 외의 일로 누군가를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장님도 그럴 자격 없으십니다.

백기장 .. 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여자정우가 두 사람의 눈치를 본다. 현석도 마찬가지다.

강렬하게 노력하며... 금방이라도 슬기를 한 대 칠 것 같은 백기장. 여자정우가 위기감을 느끼다..

에라 모르겠다 눈을 감는다. 벌떡 일어나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는 여자정우!

정우(여)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

여자정우가 현석을 보고 빨리 따라하라는 듯 손짓하자.. 엉겁결에 일어나 부르는 현석.

주먹을 쥐고 힘차게 앞뒤로 흔들면서..

정우(여),현석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 이어 받아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바라보는 슬기.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서 건너편 테이블 공군 출신 취객들까지 가세해서 노래를 부른다.

다같이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한꺼번에 박수와 함성이 나오고 구호까지 나온다. 독~수리~독~수리~...아악!

백기장이 조금 누그러진 채 여자정우를 본다.

자리에 앉은 여자정우와 현석.

백기장 너 독수리야?

정우(여) 에...니요. 근데 되고 싶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 합격하진 못하였지만...

백기장 오.. 공사 준비 했었어? 너 뭐 좀 아는 구나.

정우(여) 네..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어서.. (꾸벅) 앞으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피식. 웃다가 슬기를 한 번 보고는 혀를 끌차는 백기장. 됐다는 듯 현석에게 잔을 내민다.

백기장의 잔을 채워주면서 여자정우를 의식하는 현석.

슬기 역시 그런 여자정우가 인상적인 듯 바라보는 모습.

33. 횃집, 여자화장실 / 밤

칸막이 안. 북- 무언가(*박스테이프) 를 힘차게 뜯어내는 정우. 털썩 변기 위로 주저앉는다.

그제야 표정이 편안.. 해진다. 살 것 같다. 이때 푹푹-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슬기(E) 정미씨.. 괜찮아요?

들려오는 슬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여자 정우.

칸막이 밖에서 조심스레 여자정우의 컨디션을 살피는 슬기의 걱정스러운 표정.

슬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데. 소화제 있는데 혹시 필요해요?

여자정우(E) (곱게) 아니요오~ 괜찮습니당~

슬기 무리하지 말고, 이만 들어갈래요? 데려다줄게요.

칸막이 안. 슬기의 말에 잠시 생각하고 있는 여자정우의 표정.

34. 도로 / 밤

insert. 다리 위를 달려 나가는 차량 한 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슬기의 차량 뒷좌석에 여자정우와 슬기가 나란히 앉아있다.

긴 침묵에 어쩐지 자꾸만 슬기 쪽으로 시선이 가는 여자정우. 바람 쐬는 슬기의 머리칼이 날린다.

정우도 괜히 창문을 열어보는데 인모가발이 어색하게 훑날린다. 창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고장난 듯 닫히지 않고.

바람에 가발이 휩 돌아가자 식겁한 정우가 진땀을 흘리며 고쳐 쓰는데

창밖을 바라보다 갑자기 묻는 슬기.

슬기 아까는 왜 그랬어요?

정우(여) 아... 그거요. 뭐랄까...

슬기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정우(여) 좋은 게 좋은 거라구 예예.. 하면서 대충 맞춰주는 것도 방법인거 같아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슬기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치워야지.

(실소) 더러워서 피한 거 맞아요?

정우(여) 전 비행만 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는 상관 안 해요.

순간 고개 돌리는 슬기. 가까스로 가발을 고쳐 쓴 정우.

정우(여) (중얼) 내가 어떻게 다시 파일럿이 됐는데.

(힐끔) 부수적인 문제는 잘 견뎌봐야죠.

여자정우의 대답이 인상적인 듯 잠시 바라보던 슬기.

슬기 그래도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했던 거니까.

(자연스레 핸드폰을 내밀며) 번호 알려줄래요?

정우(여) .. 네?

슬기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 좀 부담스럽나?

핸드폰을 바라보던 정우. 잠시 고민하다.. 한껏 여성스러운 흥내를 내며. 번호를 콕콕 찍는다.

정우(여) 아뇨. 좋아요. 친하게 지내죠 같은 여자끼리.
 브런치.. 이런 거 먹구.. 달달한 거 샴페인.. 그런 것도 먹어요.
 맛있겠다~ 그쵸? 여자들만의 시간~
슬기 (웃고) 아무거나 정미씨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슬기의 미소에 심쿵하는 여자정우의 표정.

슬기의 핸드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핸드폰이 울리자 받는 여자정우.

어머,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슬기, 여자정우의 귀여운 실수에 창밖을 바라보며 싱긋.. 미소를 짓는다.

35. 한에어, 브리핑실 / 아침

여자정우와 현석, 객실승무원 넷이 여기저기 앉아 비행에 관한 전체 브리핑을 하는 중이다.

사무장이 현석에게 객실 내 특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다.

또다시 무심결에 다리 벌리고 앉아있던 여자정우.

현석과 짧게 눈이 마주치고 얼른 오므린 뒤 싱긋 웃는다.

사무장 오늘 객실 내, 휠체어 이용객 A열 30번 탑승하실 예정이고요..
 비즈니스 석에 반려견 한 마리 탑승이요. 종류는 비글.
 기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석 특이 사항 있습니다.

승무원 일동, 현석을 바라본다. 굉장히 느끼한 미소로 여자정우를 바라보는 현석.

살짝 긴장하는 여자정우.

현석 오늘 우리.. 한정미 부기장. 한에어에서 첫 비행이거든요.
 다 같이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현석의 말이 떨어지자 정우를 향해 쏟아지는 박수소리. 여자정우가 민망해하며 목례를 한다.

현석 (속삭이듯) 첫 경험을.. 나랑 하게 됐네요?

여기저기 여자정우에게 ‘저런..’ 가엾어 하는 눈빛들이 쏟아진다.

36. 비행기 조종석 / 오전

insert. 활주로 풍경. 착륙, 이륙하는 비행기들. 바빠 움직이는 특수차량들과 직원들.

나란히 앉은 현석과 여자정우. 관제탑과 나누는 라디오 무전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정우가 여기저기 노련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조작한다. 여자정우의 모습을 뵈히 바라보던 현석..

현석 목소리가...좀 남자 같다는 말 많이 듣죠?
정우(여)
현석 그걸 뭐라 그러지? 시...시발? 시바리 후까시?
정우(여) ...시베리안 허스키요. 목소리는 허스키하다.
현석 (끄덕) 별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맑았으면 인기 많았을 거 같아서.

여자정우, 목소리 톤을 낮춰 관제탑과 이야기한다.

현석 난 허스키한 게 좋더라.

여자정우,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관제탑과 이야기한다.

현석 (뜬금없이) 정미씨는 강아지상이에요.
정우(여) 예?
현석 평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나?
정우(여) 글쎄요.....

이때- 뒤쪽에서 (E)왈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현석 원숭이띠죠? 92년생.
정우(여) 아... 네. (생각하다) 그런가봐요.
현석 나 용띠. 88년생이에요.
 (오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궁합도 안 본다는 네 살 차이네.
정우(여) 그런가요. (어쩔 수 없이 맞장구) 기장님이랑 제가 잘 맞으려나 보네요.
현석 에이.. (능글맞게 웃으며) 진짜 궁합은 사실 맞춰보기 전까진 모르지.
 성인들의 궁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죠?

또 다시 들려오는 (E)왈왈! 개 짖는 소리.

현석 나는 강아지상 미인 좋아해요. 서글.. 서글 하고.. 선행 보이고
 정미씨가 딱 그런 인상 같아. 첫인상 좋단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거 이쁘단 뜻인데.

현석이 말을 할 때마다 짖어대고 하울링 하는 개소리.

현석이 말을 하지 않으면 쉬었다가 현석이 입만 떴으면 짖어댄다.

이상한 듯 의식하면서도 오기로 자신의 말을 마치는 현석.

정우(여) 지랄을 한다.

여자정우의 이야기에 당황한 듯 바라보는 현석. 여자정우가 싸늘하게 현석을 바라본다.

정우(여) ...는 말이 딱 맞네요. (씩 웃으며) 비글 말이에요. 지랄전이라더니.. 개 짓는 소리가 너무 크네요. 꼭 찢까지 다 건너오네.. 제가 캐빈에 얘기할까요?

현석 아.. (당황) 뭐.. 그렇게 하세요.

정우(여) (무전 대고) 부기장입니다. 개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구비된 강아지 간식 있으면 보호자 승객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E)왈왈! 개짓는 소리 더욱 커져간다. 그 위로 슈웅- 비행기의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전방을 주시하며 능숙하게 기계들을 조작하는 여자정우. 현석이 괜히 헛기침을 한다.
뒤쪽에서 조종석으로 들어오던 사무장이 그 모습을 보고 킁킁대다 돌아선다.

37. 비행기 조종석 / 오전

insert.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
자동항법장치가 실행된다.

현석이 길게 기지개를 켜며 스트레칭을 한다. 문득 고개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정우.
멀리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여자정우의 표정.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른다.
깊게 복식호흡을 하는 여자정우. 현석이 힐끔 쳐다본다.

현석 여기 항로 진입하면 심호흡 하는 사람이 또 있네.

정우(여) (뜨끔) 네?

현석 아, 제 주변에도 정미씨랑 같은 사람 있거든요.
만 피트 이상 무사히 뜬 게 느껴지면 이륙할 때 느꼈던 긴장이 풀린다나?

정우(여) ('설마 내 얘기인가?') 아.. 그.. 그래요? 아.. 또 있구나..

현석 저 공사 선배예요. 비행 잘하는 걸로 학교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고.
센스도 좋고.. 판단도 빠르고.. 전역할 때 항공사에서 데려가려고 난리였다니가요.

정우(여) (뿌듯) 아..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현석 맞아요. 근데 존나 위선자 새끼예요. 혼자 합리적인 척, 이쪽도 저쪽도 아닌 척.
지 이미지만 챙기다가 떨어지는 콩고물은 또 기가 막히게 주워 먹고 사는 비겁한 새끼.

순식간에 미소가 가시고 충격 받아 현석을 바라보는 여자 정우.

정우(여) 내가?

현석 ... 예?

정우(여)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갑자기 노래)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현석 어? 그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우(여) 윤복희. 여러분.

현석 (호뭇) 매력 있네....다음에 둘이서 노래방 한 번 가야겠다.

현석의 느끼한 미소. 여자정우가 인상이 구겨지는 걸 참으며 같이 웃어준다.

38. 마트 / 낮

장난감 코너에 시후와 함께 서 있는 정우. 시후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장난감들을 바라본다.
시후의 눈에 띄는 발레복을 입은 마론 인형. 시선이 꽤 오래 머무른다.
다른 칸에 놓여 있는 비행기 장난감을 하나 드는 정우.

정우 시후야. 와.. 이거 새로 나왔나보다. 보잉 777인데?
시후 (비행기 장난감 보다) 어? 어...
정우 이거 아빠가 옛날에 몰았던 거야. 크~ 엔진소리 장난 아니거든. 멋지지?
시후 으.. 으응.. 멋지당.. 나.. 그럼 이걸로 할까?
정우 아냐, 시후 갖고 싶은 걸로 해야지. 천천히 골라 봐.
 갖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사줄게.

잠시 고민하며 발레복 입은 인형을 바라보던 시후. 하지만 이내 말갈게 웃는다.

시후 아니야. 나 그거 할래. 진짜 갖고 싶어. 보잉 777.

시후가 정우가 건넨 비행기 장난감을 품에 안는다. 만족스런 미소를 짓는 정우.

정우 (슬쩍) 엄마는.. 잘 있어?
시후 (바라보다, 끄덕) 응.
정우 엄마한테 계속 아빠 보고 싶다고.. 징징대고는 있고?
시후 아... 그거.. 어.. 하고 있어. 하고는 있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내리까는 시후. 정우가 순식간에 확 열이 받는다.

39.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 / 오후

안쪽에서 시후가 보잉777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근데 별로 재밌어 하는 거 같지 않는...
무슨 일인지 목소리 낮춰서 수영에게 버럭하는 정우.
의자에 앉아 있는 수영 주변에서 서성이는 중이다.

정우 (홍분) 미쳤냐? 애한테 이혼했다고 말했어?
수영 이제 시후도 현실을 알고 받아들여야지.
정우 넌 참 현실적이라서 좋겠다.
 여섯 살짜리가 뭘 안다고...남편 직장에서 잘렸다고 바로 이혼하고.
수영 진짜로 잘려서 이혼했다고 생각한 거야?

정우 ... 뭐?

통하지 않자 자신도 모르게 버럭 하는 정우. 고삐 풀린 듯 계속 화를 낸다..

정우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진짜 이유나 들어보자.
 나 정도면 괜찮은 가장 아니었나? 직업 괜찮아. 돈 잘 벌어다 줘.
 막말로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너나 애를 때리기를 했어 도박을 했어?
수영 (가만 듣다가) 시후 장래희망 알아?
정우 (갑자기?_스 시후를 보고) ...파일럿이잖아? 아빠처럼 파일럿 되겠다고 만날..
수영 시후 발레 하고 싶대, 세계적인 무용수 되고 싶다더라.

당황한 정우.

수영 나 작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혹 제거 수술 받았어. 그때 필라테스도 그만
 됐고. 수술 하고 나선 갑자기 없던 알러지가 생겨서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사이) 갈비찜도 못 먹고.
정우 ... (당황) 어?
수영 작년에 우리 아빠 오십견 온 것도 몰랐지? 올해 오빠 어머니 칠순이신 건...?
 오빠 허구 헛 날 비행 핑계대서 칠순잔치도 혼자 알아보고 예약했어.
 ...몰랐겠지. 오빠는 오빠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정우 그래서 바람 피웠어?

수영, 정우를 쳐다본다.

수영 조정 기간에 만났어. 더 일찍 못 만난 게 후회될 정도로 오빠랑은 달라.
정우

40. 인천 공항 로비 / 오후

멍- 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장한 정우. 길게 한숨이 흘러나온다.
트렁크를 끌고 그 앞을 지나가던 슬기. 지나쳐가다 다시 뒷걸음질 친다.
여자정우의 우울한 표정을 살피는 슬기.

슬기 무슨 일 있어요?
정우(여) 아.. (하다 절레)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슬기 설마.. 또 지랄전?
정우(여) (올려보며) ...?
슬기 소문 다 났던데. 정미씨가 서현석 기장보고 지랄전이라고 했다고.

슬기가 웃자.. 그제야 여자정우도 아.. 하다 따라 웃는다.

슬기 다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데..
 서기장 여기저기 찢쩍대는 걸로 유명하니까 조심해요. 개조심.
 정우(여) (웃으며_중얼) 네, 개새끼 조심....
 슬기 배 안 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스트레스도 좀 풀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여자정우에게 팔짱을 끼는 슬기. 끌려가는 여자정우.

41. 데이트 몽타주

#. 속옷 가게 / 오후

여자정우가 레이스 속옷을 보고 있으면 노와이어 브라렛을 추천하는 슬기의 모습.
 탈의실에서 속옷을 바꿔 입고 나와 만족하는 여자정우의 모습.

#. 신발 가게 / 오후

구두 코너를 보고 있는 여자정우에게 가보시가 들어간 하이힐과 운동화를 추천하는 슬기.

#. 길거리 / 오후

쇼핑백을 들고 변화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정우와 슬기의 모습.
 행인 1이 여자정우 앞을 지나가자 시크한 스타일로 바뀐 여자정우와 슬기.
 차 한 대가 앞을 지나가자 유니섹스 스타일로 바뀐 여자정우와 슬기.
 여자정우가 가로수를 지나가자 호피와 지브라 드레스로 바뀐 여자정우와 슬기.

#. 클럽 / 밤

여자정우가 슬기에게 이끌려서 들어간 클럽.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이 어지럽게 펼쳐지는데..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슬기와 함께 쑥스럽게 춤을 추며 아이컨택하는 여자정우.
 마치 키스라도 할 것처럼 마주본 상태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 가까이...더 가까이,.....
 음악이 바뀌자 꿈에서 깨듯 술을 마시러 가는 슬기와 따라나서는 여자정우.
 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고.....
 여자정우의 춤사위가 과감해지기 시작한다.
 파워댄스~섹시댄스~

#. 클럽 앞 / 밤

클럽 밖으로 나온 여자정우와 슬기.

슬기 아 잠깐! 나 핸드폰 아까 바에 두고 온 거 같은데요.
 정우(여) 같이 가줘요?
 슬기 기다려요. 금방 갔다 올게요.

여자정우가 혼자 서 있는데 뒤따라 나와서는 다가오는 클러버.

클러버 벌써 가요? 이제 시작인데.. 톱 잡았으니까 더 놀다가요.
 정우(여)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클러버 (손 잡아끌며) 에이. 그러지 말고. 아까 보니까 춤 잘 추던데 같이 놀자.
 (꿈쩍도 하지 않자) 헬스 하나 봐.
 정우(여) 죄송해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클러버 어차피 집에 가면 잔다고 누워서 핸드폰 할 거잖아.
 딱 1시간만 더 놀다가.
 정우(여) (뿌리치며) 어휴 증말 죄송하다잖아 새끼야.
 하 징그러운 새끼. 사람 줄라 귀찮게 하네.

나자빠진 클러버가 민망해하며 일어나서는 주위 눈치를 살피는데.
 영문을 모르는 슬기가 나오면 먼저 팔짱끼며 호호호호~ 그 자리를 떠나는 여자정우.

42. 닭발집 / 자정 이후

옆으로 쌓여있는 소주병들. 못해도 예닐곱 병은 되어 보인다.
 또 한잔 크으~ 들이키는 슬기를 놀랍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정우.

정우(여) 이렇게 마시고도 하나도 안취하시네요?
 슬기 티 안 나죠? (슬며시 웃으며) 내일 기억 못할 거 같은데.

멀쩡하게 다시 여자정우에게 소주를 한잔 따라주는 슬기.
 곧 자작을 하려고 하자 병을 잡으려는 여자정우.

슬기 괜찮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정우(여) ... 그래도.
 슬기 쓸데없는 예의 차리는 거, 우리 사이에선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회사 분위기 딱딱하잖아요.
 정우(여) ...(보다) 백기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이번 달에 비행 많이 겹치던데.
 슬기 정미씨 말대로 우선은 예예, 하면서 맞춰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비행을 하는 자체니까..

슬기는 여자정우를 매우 편하게 느끼는 듯 경계 없이 얘기를 털어놓는다.

정우(여) (조심스레) 이 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슬기 처음엔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여자가 무슨 파일럿이냐고 하나까
 오기가 생겨서.....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정하나 몰라요.
 정우(여)
 슬기 돈도 많이 들고.. 한번 됐다고 끝인가?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고질병에.. 안
 그래도 안 좋아하면 못 버티는 일이잖아요.
 정우(여) 아.. (끄덕) 그런가. (가웃) 안 그런 조종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님가.

슬기 정미씨도 비행만 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는 상관 안 한다면서요.

지그시 여자정우를 바라보는 슬기의 눈빛.

슬기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는 여자정우. 막상 생각을 해보려니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정우(여) 글썄요.. 전 뭐.. 딱히. 하다 보니까? (더 생각하다) 돈.. 많이 벌어야 해서?

슬기 ... 돈?

정우(여) 유명해지고 잘나가고 싶단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첫째는 역시 돈...

슬기, 실망한 기색이 역력..

정우(여) 돈을 많이 벌어야 빨리 자리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빠가 없는 집에선 제가 가장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관학교가 등록금이 없으니까 공사에 (아차!)..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갔지만..

슬기가 여자정우에게 집중한다.

술도 올랐겠다, 슬기도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울컥해지는 여자정우.

정우(여)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부터 챙기고 봤던 거 같아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박쥐같은 인간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천천히 말을 잇는 정우.

정우(여) 누구나 다 꿈꾸는 인생..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들도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안락해지는 그런 삶.

조종사만 되면.. 저절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슬기가 냅킨을 하나 뽑아 건넨다. 당황하는 여자정우.

슬기가 다시 한 번 냅킨을 받으라는 듯 흔든다.

바로 이 때 거짓말처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여자정우의 눈물. 여자정우 스스로도 당황스러운데...

슬기 그냥 지키고 싶은 게 많았던 거 아닌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서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한 번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주체를 못하겠다. 울기 시작하는 여자정우.

우스꽝스러운 데 찼하고 웃픈 여자정우의 모습. 슬기가 여자정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준다.

정우(여) (아이처럼 어깨 들썩이며) 아빠가. 훌쩍.. 어디 가서.. 훌쩍..

다 큰 놈이.. 훌쩍.. 우는 거 아니라고.. 훌쩍.. (고개까지 돌아가며) 아빠가..

슬기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지 뭐.

슬기의 품에서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는 여자정우.

슬기 앞으로 그냥 언니라고 해. 나도 말 편하게 할게.

슬기를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우는 여자정우. 언니! 언니!! 언니!!!!!!!!!!!!!!

43. 길거리 / 새벽

만취한 여자정우와 슬기가 함께 휘청휘청 걸으며 노래한다.
주거니 받거니 신나는 분위기.

정우(여),슬기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내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여자정우가 지르는 파트에서 남자목소리로 열창하는데도 장난이라고 생각해 깔깔 웃으며 여자정우를 흉내 내는 슬기.

때마침 킥보드 한 대가 지나가며 슬기와 부딪치려하자 잡아끄는 여자정우.

여자정우에게 꼭 안기고 나서는 당황하는 슬기, 아이컨택 하는 두 사람.

미약하게 시작되려는 두 사람의 두근거림...

미간이 움찔하는 여자정우.

어디선가 들리는 뭔가 터지는 소리. 꼭 테이프 뜯는 소리 같다. 눈을 크게 뜨는 여자정우.

당황한 듯 몸을 떼고는 자신도 모르게 슬기를 확 밀어버리고 수풀 사이로 사라진다.

44. 길거리, 공원 / 새벽

수풀 속, 나무를 짚고 선 여자정우.

사타구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문을 외우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정우의 공군사관학교 교가.

노래를 멈추는 여자정우. 조용히 잔디 위에 앉는다.. 문득 강한 현타가 몰려온다.

머리를 나무에 쿵쿵 찡는 여자정우.

슬기 정미야.. 괜찮아? 토할 것 같으면 등 좀 두드려 줄까?

몰려드는 자괴감에 눈을 꼭 감는 여자정우의 표정. 조용히 얘기한다.

정우(여) 언니.. 미안한데.. 혹시.. 근처에 편의점 보여?
박스...테이프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45. 정우의 본가, 거실 / 낮

화면 가득 떠오르는 정미의 얼굴.

손 걷어 부치더니 열정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정미의 모습.

손도 마주 비비고 웃기도 펄럭펄럭, 입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향해 프라이머를 꺼내든 정미.

정미(E) (입소리로 영어발음 한껏 굴려서) 프와이쥬~

손톱으로 툭툭툭툭 두드리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정미.

정미(E) (입소리로 영어발음 한껏 굴려서) 켄~쉴뤼~

컨실러를 꺼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뽁뽁뽁뽁 소리를 만들어내다가 멈추는 정미.

이제 보니 자신의 ASMR 메이크업 영상을 편집하고 있던 정미.

이때 욕실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 정우.

정미 뭘 한다고 새벽에 들어왔대. 평소에 입지도 못하겠구만 잔뜩 질러서는.....

핸드폰을 보자 [잘 들어갔지? 해장 잘해!] 라고 ‘슬기언니’에게 카톡이 와있다. 미소 번지는 정우.
바로 이때 연달아 마우스를 클릭하던 정미가 뭔가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뜬다.

정미 야, 이리 와봐. 빨리!!

다가가 모니터를 바라보는 정우. 나란히 서서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는 두 남매의 투샷.
썸네일에 있는 안자의 얼굴. [임영웅이 왔다면 곳은 못 참지~ 마랑할미와 함께 하는 포천성지순례]

46. 유튜브 영상, 포천 / 낮

포천 길거리에서 셀프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안자의 모습이 보인다.

정우와 정미의 엄마다. 카메라로 비추이는 푸른색 티셔츠에 푸른색 모자 차림.

한 건물 입구를 흥분한 모습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

그 뒤로 임영웅의 팬 영웅시대 (50, 60대)들이 서넛, 안자를 따르고 있다.

안자 밑의 자막, 닉네임 마랑할미.

안자 (핫도그를 보여주며) 이 것은 우리 영웅님이 포천 올 때마다 사먹는 거~

영시1 오~ 언니! 저기 영웅님이 하품했었는데!!

안자 어디~ 어디~ 아!

cut to. 길거리. 이어지는 성지순례.

안자 우리 아들이 공사 수석 졸업하고 파일럿이야. 딸은 서울대 미학과 나왔고.
영시1 .. 오오... 대박.
영시2 아무리 영웅님이 좋아도 역시 자식들이 최고다. 이거예요?
안자 아휴. 애. 귀 췌어. 어디 갖다 델 게 없어서, 우리 애들이랑 영웅님을 비교해.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자식새끼들이야. 너도 낱아보면 알어.
영시1 언니, 나 비혼인데요?
안자 비혼도 좋고, 결혼도 좋고, 재혼도 좋은데. 뭐든지 간에 정해놓고 살지 마.
 정해놓고 맞추면서 살다간 금방 늙어.

자막 - 촌철살인! 우리가 마량할미언니를 좋아하는 이유!
포천성지순례는 마량할미언니의 눈물나는 IMF 극복기로 밤새 달려...

마우스 휠을 내려 보면 [공사에 서울대 ㅎㅎ] [저렇게 쿨하게 살고 싶다 안자 언니처럼 ㅎㅎ] [우리 시어머니였음 좋겠네요] [그래봤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임]...

47. 정우의 본가, 거실 / 낮

꿈뻑꿈뻑- 거리며 얼굴을 맞댄 채 모니터를 바라보는 정우와 정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정우 ... 엄마.. 맞지? 야 그럼 내 방에 그게 엄마가.....
정미 와.. 조희수 봐. 미친.. 백만 넘었어...

바로 이때- 띠디덕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들린다.
뒤 도는 정미와 정우. 캐리어를 끈 안자가 등장한다.
캐리어를 던지듯 내려놓으면 나이스 캐치하는 정미.
거침없는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오는 안자. 머리에 푸른색 브릿지가 몇 가닥 보인다.
쑥대밭이 된 집안 끝에는 예상한 듯 별 관심이 없는 채 정우를 발견하고 멈칫하는 안자.

정미 .. 미안 엄마.. 내가 청소하려고 했는데..
정우 (급하게 변명)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집은 이 꼴이었어. 진짜야.

기분이 상해서 핵 정우를 쏘아보는 정미.

안자 니가 왜 여겼니?
정미 엄마, 오빠 새언니랑 이호...ㄴ
정우 (하는 순간 입 막으며) 잠깐 놀러왔어! 어어. 지나가다가.
안자 이혼 했구나.

헉! 어떻게 알았지. 싫은 정우. 안자의 뒤편에서 온갖 제스처로 정우를 놀리는 정미.

안자 터질게 터졌네.. (한숨) 아휴... 불쌍한 수영이.

정우 (섭섭) 엄마! 대체 누구 엄마야?
안자 (정우 보며) 아우.. 징글징글한 한씨 종자들. (정미 보고도) 비켜!

안자가 안쪽에서 다른 트렁크를 하나 더 꺼내온다.

정미 오자마자 또 어디가려고?
안자 강릉에 영웅님이 왔다간 와플집이 있대서, 거기 갔다가 영시들이랑 오징어 배
탈 거야. 영웅님이 낚시하다 거기서 배 멀미를 했다더라고?
정우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이혼했다니까?
정미 엄마, 오빠 좀 어떻게 해봐. 아예 여기 들어와 살려구 그런다니까?

마치 지휘하듯 산뜻하게 손가락으로 허공을 터치터치 하는 안자.

안자 엄마 금지. 엄마 부르지 마. 엄마 오늘 샷파 내렸어.

cut to. 창- 문이 닫히고 남겨진 두 남매.

정미 뭐지? 갱년기가 다시 왔나.
정우 (보며) 엄마 언제 갱년기 왔었어?

후- 짜증난다는 듯 정우를 노려보다 엄마 방으로 다가가는 정미.
‘엄...’ 하다가 ‘아줌마~!!’ 하며 들어간다.

48. 한에어, 브리핑실 / 오후

트렁크를 끈 채 들어서는 여자정우. 문이 열리자 한에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트렁크를 끌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자정우. 이젠 실수 없이 여자 화장실이다.

49. 한에어, 여자화장실 / 오후

손을 씻고 있는 슬기. 여자정우가 그 옆에 선다. 마주치자 어색한 두 사람.
슬기가 어색해 하며 거울을 바라본다. 여자정우 역시 마찬가지다.
힐끔.. 정우 쪽을 보던 슬기. 둘이 얼굴을 마주친다. 슬기가 여자정우 얼굴 쪽으로 손을 뻗는다.
눈을 감는 여자정우. 오가는 긴장감.
슬기가 여자정우의 얼굴 위로 떨어진 속눈썹을 떼어준다.

정우(여) 깽! 뭐야?! 별레야??
슬기 눈썹 붙이나보네.
정우(여) 아웅.....풍성한 게 더 예뻐서..... 고마워.

어딘가 비밀스럽고 에로틱함이 느껴지는 분위기.

정우(여) 언니는 왜 남자친구 안 만나? 결혼도 안할 거라며.
슬기 요 근래엔 사느라 바빠서. 나 하나 전사하기도 힘든데 결혼은 무슨.....

여자정우가 슬기를 빤히 바라본다.

정우(여) 소개팅 해줄까?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 나 남자친 많아.
슬기 음... 키는 나보다 크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 이해해 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제일 친한 친구 같은 남자?
정우(여) 싫어하는 타입은?
슬기 거짓말 하는 사람. 나 처음에 마음 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좋아지면 다
믿어버려서.
정우(여)
슬기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정우(여) 나는.. (슬기를 찬찬히 쳐다보며) 키는 나보다 작으면 좋겠고. 나랑 다르게 소신
이 뚜렷해서 오래오래 곁에 두고 닮고 싶은 여자.....
슬기?
정우(여) ...같은 사람.
슬기 아! 나 생각나는 사람 있다. 크리스티안이라고 멕시코인데 사람 괜찮아. 몸에 털
이 좀 많아서 아침마다 빗으로 안 빗어주면 벌레가 간혀서 못나온다는 얘기 듣
고 놀래긴 했는데.....

이때 뒤가 소란스러워 지더니 여성 직원들이 떼 지어 들어온다.

슬기 (시계 확인하며) 가 봐야겠다. 비행 잘 해.

먼저 나가려는 슬기. 여자정우가 뭔가 생각하다 슬기를 불러 세운다.

정우(여) 언니!

돌아서서 정우 바라보는 슬기.

정우(여) 나 하와이 갔다 와서.. 얘기 좀 할까? 나 사실 언니한테 할 말 있는데...

슬기가 알게 고개를 끄덕인 후 화장실을 나간다.

슬기가 나간 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정우.

또 얼굴에 속눈썹이 붙어 있다. 화들짝 놀랐다가 떼어내는 정우.

후- 길게 한숨을 쉰다.

50. 이륙 몽타주 / 오후

#. 객실 / 오후

하나 둘 비행기에 오르는 승객들. 승무원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짐을 싣는 것을 돕고 있다.

#. 조종석 / 오후

현석과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정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현석 킹크랩 맛있는 곳 뚫었는데 끝나고 어때요?
정우(여) 아... 제가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되네요.
현석 로컬 맛집인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정우(여) 제가 맛집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여자정우, 비행기의 모든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교신한다.

현석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돼요?
정우(여) (핸드폰 꺼내서 끄며) 꺼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감사해용.
현석 설마 나 차단했어요?
정우(여) 네.
현석 (충격) 언제까지 이렇게 재기만 할 거예요?
정우(여) 예?
현석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우(여) 네...그런데요...?

#. 활주로 / 오후

이륙을 위해 살살 움직이는 거대한 항공기.

#. 객실 / 오후

안전벨트를 맨 승객들. 승무원들 역시 자신의 자리에 벨트를 매고 앉아있다.

#. 창공 / 오후

유유히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 하늘로 높게 올라간다.

51. 비행기 조종석 / 오후

나란히 앉아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현석과 여자정우. 저 멀리 창밖으로 높게 쌓인 구름층이 보인다. 여자정우가 핸들을 움직이려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현석이 꼭 붙잡은 핸들을 놓지 않고 있다.

현석 하.....밀당하는 여자 재미없는데.....
정우(여) 기장님 전방에.....저희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석 ...돌아가?...전부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정우(여)
현석 정미씨도 결국 똑같은 여자였구나. 살면서 정미씨 같은 여자들 많이 봤어요. 선

안 곳고 여지주면서 관심만 즐기다가 불리해진다 싶으면 남자 쓰레기 만드는 여자들.

정우(여) ...제가요?

현석 먼저 꼬리 쳤잖아요. 자꾸 훑쳐보고..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정우(여)제가요?

F.B.

혹시나 자신을 알아봤을까 자꾸만 훑쳐보고 도망치고 눈 마주치면 당황해서 웃는 정우.

현석의 시선에서 변질된 정우의 모습은 마치 현석을 짝사랑하는 풋풋한 소녀처럼 보인다.

현석 정성스러운 어장 뭐 그런 건가? 혹시 부모님이 양식장을 하시나?

정우(여) 저 기장님 안 좋아해요. 지금 이러는 거 엄청 부담스럽고 싫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별로고, 냄새도 (으...) 좀 나는 거 같고.

현석, 충격 받은 얼굴...

insert. 구름과 구름 사이로 진입한 비행기.

여자정우, 한층 사이드로 늘어선 구름층에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는데.....

현석 한 번 더 노력해 볼게요. 더 자주 씻고.

정우(여)

현석 정미씨는 확실히 다른 여자들이랑 다른 거 같으니까.

정우(여) (짜증) 남자니까요.

현석

정우(여) (이성 되찾고)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기장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

바로 그 순간 주먹만 한 우박 덩어리 떼가 비행기 창문으로 날아든다. 금이 가는 창문. 움푹 들어가는 앞코.

순식간에 비행기를 덮치며 양쪽 엔진을 강타하는 우박들.

깜짝 놀라는 여자정우와 현석. 핸들을 꼭 부여잡는다.

cut to.

객실. 황급히 켜지는 안전벨트 사인. 승객들이 흔들리며 우왕좌왕한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cut to.

다시 조종실. 엄청나게 흔들리는 기체. 정우가 바라보는 모니터에 빨간색 불이 깜빡인다.

객실에서 들려오는 승무원의 당황한 목소리.

승무원(E) 기장님! 난기류입니까?

정우(여) 승객들 안정 좀 시켜주세요. 어..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시작하는 현석.

현석 (덜덜덜 떨며) 비상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모든 승객들 탈출할 수 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위 월 비...죽는다!!! 다 뒤흔들어야!!!!!!

비명을 지르며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현석.

승객들의 아비규환 비명소리가 뒤편 객실에서 터져 나온다.

정우(여) (덜컥! 크게 흔들리는 비행기) 오오... (항로를 보며) 기장님 항로 이탈해요!! 항로.....!

바로 그때, 한꺼번에 먹통이 되어버리는 모니터들.

현석 (앞이 온통 구름이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비상시 대비훈련을 일 년에 수백 번 반복합니다. 결국 모든 건 경험치에서...

정우(여) (다시 덜컥!) 으오오..! (안되겠다) 기장님, 컨디션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제가...

현석 (울 거 같은 얼굴이면서도 단호하게) 아뇨, 만에 하나 마지막에 마지막이 올지 언정 승객들과 캐빈을 책임지는 건 기장의 몫...

정우(여) (점점 흔들림의 강도가 거세진다) 기장님, 기장님.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현석 (근엄한 척) 어허, 이머전시에서 상황대처와 순발력은 여자들보다 남자가...

정우(여) (진짜 큰일 나겠다_ 남자목소리) 아가리 싸물고 핸들 내놓으라고 새끼야아!!

순간 정적. 심각한 와중에도 현석이 천천히 여자정우를 돌아본다.

현석 (순간 침묵) 정우선배?

정우가 순간 에라 모르겠다! 주먹을 크게 휘둘러 펌! 현석을 기절시킨다.

이를 악물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빠른 속도로 요동치는 기체.

마이크를 잡은 여자정우가 꼭 핸들을 붙잡는다. 여자정우의 얼굴에 땀이 배어 나온다.

점점 비행기 앞창으로 가까워지는 지상이 보인다. 추락하고 있다!

정우 제발... 제발...

흔들리는 핸들을 꼭 부여잡은 정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뜬다.

순식간에 주변이 환해지고... 화이트 아웃.. 으아악! 정우가 비명을 지른다.

52. 병원, 응급실 / 오후

하나 둘.. 천천히 눈을 뜨는 여자정우. 의사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여자정우를 바라보고 있다.

갓 실려 온 듯 부산하게 움직이는 병원의 풍경들.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여자정우가 펄쩍 정신을 차리며 벌떡 일어난다.

정우(여)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의사 (당황) 어어? 뇌진탕 있으실 지도 몰라요. 갑자기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바닥으로 내려온다.

땡-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자 여자정우를 붙잡는 간호사들.

여자정우는 도리질을 하며 정신을 깨치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푸쉬업을 하기 시작한다.

정우(여) 헛! 둘! 셋! 넷! (일어서며) 봐요, 괜찮죠?

가슴 뿡이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지자 얼른 주워서 챙기는 여자정우.

황급히 찢어지고 엉망인 유니폼 차림 그대로 서둘러나가는 여자정우. 따라 나가는 의료진.

53. 병원 앞 / 오후, 비

여자정우가 응급실 밖으로 나온다. 나오는 순간 준비한 채 기다리던 기자들이 떼로 달려온다.

어리둥절한 채로 기자들을 바라보는 엉망진창 몰골의 정우. 햇살 빛 부심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기자1 사고 당시 무슨 상황이셨습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2 부상자는 엄지발가락이 부러진 한 명이라던데.. 사실입니까?

기자3 사고 원인은 파악 됐습니까?

당황한 여자정우 앞으로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대는 기자들.

뒤따라온 간호사에게 얼른 처치 곤란한 가슴뿡을 건네는 정우를 향한 공격적인 플래시 세례.

겁겁이 쌓인 기자들 틈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인다.

기자4 215명 승객들을 구하셨습니다. 파일럿님..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하자, 경외심 가득한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는 기자들.

바로 이때, 여자정우를 잡아끄는 검은 양복의 몸집 큰 사내들.

사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여자정우를 에스코트하며 경호하듯 데리고 가는 사내들.

사내들이 여자정우를 데리고 간 곳의 끝에 커다란 검은 스타크래프트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기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등등 쏟아지는 질문 폭격들..

엉겁결에 차에 올라타는 여자정우.

출발하는 스타크래프트.

54. 도로, 스타크래프트 안 / 오후, 비

타블렛으로 그 사이 뜬 여자정우의 기사를 확인하는 노이사.

마음씨 따뜻한 국민영웅 '의료진에게 핫팩 건네는 모습 포착'

여자정우가 옆을 바라보면 차갑고 딱딱한 얼굴로 앉아있는 노이사.

그 옆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여자정우. 험악한 분위기다.

노이사 한정미씨. 자기 영웅이야. 승객들을 구한 거라고.

여자정우가 어버버 한 채로 앉아있다. 서서히 상황 파악해 가는 여자정우. 퍼뜩 현석이 생각난다.

정우(여) 근데 서현석 기장님은요?

노이사 아.. 서기장..

의아해 하는 여자정우의 얼굴 위로..

insert. 병원 1인실. 엄지발가락에 깁스를 한 채 앉아서 낮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는 현석.

노이사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에 기억 상실
이 올수도 있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다니까, 일단 지켜보죠?

(화제전환) 아, 그리고 승급 할 거예요. 기장으로.

정우(여) ... 예?

노이사 특별기장승급. 할 거라고요. (힘주어) 한정미 기장. (미소)

정우(여) ... (놀라며) 제가... 기장을...?

노이사 뭐 끈대들 몇이야, 이런 걸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

근데 위급상황에서 승객들을 구하고 비상착륙에 성공한 한정미가 아니면,
누가 기장을 해? 안 그래요?

정우(여) (얼빠져서) 그.. 그렇습니까?

노이사 (웃으며) 자기 이제 내 사람이야. 필요한 거 생기면 얼마든지 얘기해요.

(똑바로 쳐다보며) 앞으로 한정미가 사는 세상. 내가 바뀌줄게요.

사이_얼떨떨함이 지나가고 일단 기분 좋은 웃음과 걱정이 교차하는 여자정우의 얼굴.

55. 한에어 로비 / 오후, 비

여자정우가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삐익- 뽉사리가 난다. 긴장한 듯 관중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노이사 쪽을 보자 그녀가 여자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봉투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는 여자정우.

정우(여) .. 안녕하세요. 한에어의 파일럿. 한정미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이번 비상착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 셔터가 터지는 소리 들린다.

정우(여) (긴장한 채) 한에어는 금일 오전 11시 58분..
국제인천공항에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순항을 하던 중, 강력한 하강기류를 만났습니다.

56. 정우의 방송 몽타주

#. 길거리 / 오후

거대한 전광판 위에 자막 떠오르며 방송되고 있는 여자정우의 모습.

정우(여)(E) 사고 당시 저와 함께 비행하던 서현석 기장은 주행을 저에게 맡기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그 직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이 여자정우의 모습을 올려다본다.

#. 병원 / 오후

멍 때리며 앉아 있는 현석의 모습. 침이 주욱.....턱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 위로도 낭창한 여자정우의 목소리 울려 퍼진다.

정우(여)(E) 저는 침착하게 평소의 비행경험을 토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 주상복합 아파트 / 오후

시후가 무용복을 입고 거실에서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수영. 클로즈업 되는 여자정우의 얼굴을 바라본다.

정우(여)(E) 저희 한에어는 승객들의 안전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시후가 잠시 멈칫 하더니 TV화면을 바라본다. 아빠의 여장한 얼굴을 집중해서 보는 시후.
전혀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고 집중하며 화면을 보고 있는 수영. 엄마에게 말하려다 관두는 시후.

#. 정우의 본가, 거실 / 오후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미.
미치겠다는 듯 쿠션에 얼굴을 파묻는다.

정우(여)(E) 유일한 부상자셨던 엄지발가락이 부러진 피해자분께는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한에어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아아... 한정우.. 지상파란 말이다...지상파.....
(걱정)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찌려고 이러냐아..

#. 한에어 로비 / 오후

여자정우의 인터뷰를 들으며 매우 만족스러운 듯 흡족해 하는 노이사.
곧 여자정우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노이사가 앞에 선다.

노이사 이상, 질문은 저한테 하세요.

여자정우에게 떨어진 것 이상의 빛 부심 강한 플래시들이 노이사를 향해서 팡팡 터진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못마땅한 듯 혀를 차는 백기장.
다른 직원들이 여자정우를 보며 환하게 웃고 박수친다.

57. 인천공항 로비 / 밤

입국장을 나오던 슬기가 계속 정우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다.
공항 TV에서 한에어 비행기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앵커 이야.. 한정미 부기장이 승객들을 구했어요.

화면 후경에 대문짝만하게 걸린 여자정우의 얼굴.

앵커 기장도 아니고 부기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패널 그야말로 한국판 설리입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뉴욕을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던 US 에어웨이즈 항공기가...

놀란 슬기가 얼른 여자정우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가고.....

슬기 여보세요? 정미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58. 정우의 본가 앞 / 밤

이제 막 택시에서 내린 여자정우가 전화를 확인하고 받는다.

정우(여) (호들갑) 언니!!!! 언니!!!! 나 진짜 죽을 뻔 했잖아!!! 뉴스 봤어?!

슬기(F) 괜찮아? 어디 다친데 없어? 나 좀 전에 한국 도착해서 사고 난 거 알았어.

정우(여) (소파에 앉으며) 와 서현석 그 개새끼.....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어? 구름 보이
면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미친놈이 덴탈 나가가지고 핸들 잡
고 안 놓는 거야 글썄!

슬기, 조잘거리는 여자정우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주저앉는다.

슬기(F)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나 진짜 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울컥) 얼마나

걱정했는데...

슬기...파들파들 떨어는 손과 목소리.

여자정우..... 슬기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라앉은 듯.....

정우(여) 나.. (진정 시키며) 근육통만 좀 있고 멀쩡해.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하지 마.
슬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눈물을 훔치는 슬기의 모습.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자정우.

정우(여)(F) 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는데.....
병원에서 눈뜨자마자 언니 얼굴이 떠오르더라.

슬기(F)어?

정우(여) 보고 싶어 언니.. 너무너무.. 보고 싶다.

슬기(F)

정우(여) 공항이야? 내가 그리로 갈까?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슬기..

슬기(F)너 좀 쉬어야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쉬어.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다. 나중에 연락하자. 끊을게.

정우(여) .. 응..

당황한 듯 한 슬기의 표정. 아니겠지. 설마.....

통화를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여자정우.

그제야 움직이면 계단 불이 켜지며 귀신처럼 등장하는 정미. 언제부터 앉아 있었던 걸까.

기겁하는 여자정우.

정미 보고 싶어 언니야? 보고 싶어~? (화난 듯) 너 설마 그 꼬라지로 연애도 하나???

정우 아니...아직은 아닌데...

정미 아직은?? 아직은?! (목소리 떨리며) 진짜 이러다 들키면 어찌려고 그래?
인터넷에 니 얼굴 도배되고 난리야 지금.

정우 (억울) 내가 뭐 사고 내고 싶어서 냈.....

여자정우를 노려보고 있는 정미의 눈에 잔뜩 눈물이 가득 고이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오열을 시작하는 정미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정우.

정미 이 미친놈아.. (하다가 버럭) 진짜 죽은 줄 알았잖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평평 우는 정미에게 다가가 감싸는 여자정우. 그래도 가족인가보다... 싶은데...

정미 (울면서) 이 집 대출금 원리상환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정우 아 나 진짜...

59. 한정식 집 / 오후

여자정우와 슬기 나란히 앉은 앞으로 노이사가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노이사 두 사람 아는 사이였구나?
정우(여) 예. 비슷하게 입사해서 친해졌어요.
노이사 그럼 윤부기장은 좀 서운했겠어. 이쪽이 먼저 기장 달아서.
슬기 그런 건 없습니다. 한정미 기장은 훌륭한 조종사니까요.

여자정우를 보며 대견한 미소를 보내주는 슬기.

여자정우와 슬기가 앉은 사이로 두 사람의 손이 닿을락.. 말락... 발견하고 슬쩍 손을 거두는 슬기.
여자정우의 얼굴에 아쉬운 기색이 역력한데.....

노이사 (여전히 웃음 남은 채로) 두 사람 그림이 너무 좋아.
한에어를 이끌어가는 두 여성파일럿. 헤드라인감이잖아.
(여자정우 보며) 국민을 구한 영웅과 (슬기를 보며) 인권을 위한 투사.
잔다르크? 아니다, 아마존 여전사들! 기획기사로 어때?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여자정우. 슬기를 돌아본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슬기, 긴장한 채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노이사 하여튼 너무 좋다. 밸런스가. (하다 여자 정우 보고) 어머, 자기는 몰랐구나?
(슬기 보며) 친하다면서. 말 안했어?

묵묵히 말이 없는 슬기. 되려 노이사가 여자정우에게 얘기한다.

노이사 예전에 한국항공 사태 알죠? 업계에서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내 동생 노정욱 상무 희롱발언 녹음파일. (뿌듯) 그거 터뜨린 게, 우리 슬기씨
야.
정우(여) ... 네?

60. 호프집 / 저녁 (회상)

일전의 노상무를 중심으로 했던 신입운항공무원들의 한국항공 회식자리. (#9의 다른 시점 재구성)

정우 (잔뜩 취해) 비행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정도면 탑이죠~ 만 항공사 캐빈들에 비
하면 진짜... (승무원들 바라보며 워크 워크) 이렇게 아름다운 어? 꽃다발 같은

우리 승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노상무의 대각선 자리에서 이를 악문 채 듣고 있는 슬기.

정우 자, 상무님. 막잔 하시죠! 여기 앞에 우리 승무원분께서 한 잔 드린답니다.

앞을 바라보며 윙크 윙크 마구 날리고, 맞춰달라는 제스처어 보이는 정우.

외모품평의 대상이었던 스텐더디스가 잔 안에 침을 각 뱉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슬기가 위스키 병을 들어 노상무의 잔에 따라준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고, 탕! 소리를 내며 병을 내려놓는 슬기.

정우 아이고~ 아주 애사심이 넘치다 못해 상무님에 대한 애정도 넘치네~ (신나서)

슬기 옆에 뒤집어 놓인 핸드폰. 녹음중이라는 표시가 깜빡거린다.

61. 한에어 브리핑 실 / 오전 (회상)

노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덩덤히 얘기하는 슬기. 뉴스보도에 나온 인터뷰 중이다..
노이사가 슬기를 향해 여자정우에게 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 신호를 보낸다.

슬기 수치스러웠죠.. 내가 이리려고 수년을 훈련하고 승무원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 관계자분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인터뷰를 잇는 슬기를 흡족한 듯 바라보는 노이사. 슬기 앞에 노이사가 적어준 멘트들 보인다.

노이사 우는 게 힘들면 마지막에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가려볼까?

내키지 않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슬기.

모자이크 화면 속 마치 우는 것처럼 보이는 슬기의 모습.

노이사 (환희에 차서) 오케이!

62. 한정식 집 / 오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얼굴로 눈을 크게 뜬 여자정우. 그제야 기억이 난다.

허어어억- 크게 들숨 쉬다 옆에 있던 슬기의 손을 덥석 잡는다.

화들짝 놀라는 슬기. 정우의 행동에 놀라긴 노이사도 마찬가지다.

정우(여) 왜 그랬어요?

슬기 (당황) 정미야.. 갑자기 왜 그래.

정우(여) 왜... 왜 그랬어?
노이사 ... 한 정미 기장?

부들부들 떠는 여자정우의 손. 슬기가 여자정우에게로부터 손을 빼낸다. 짧게 심호흡하는 슬기.

슬기 그냥.. 다들 힘들어하니까,
정우(여) ... 뭐?
슬기 똥 치운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니까.
정우(여) ... 똥...? 하.. ('내가') .. 똥?

뭐라 분출을 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으며 물을 마시는 정우. 근데 이상하다?

정우(여) 근데 왜 똥 치워놓고 한에어에 있어?

별 대답이 없는 슬기. 노이사가 대신 여자정우를 보며 대답한다.

노이사 사람들 마음이 원래 다 그래요. 처음엔 다들 응원해줘도.. 결국 남의 일이거든.
뒤에서 녹음기 차고 다닌다 무섭다.. 어디선 그 한정우 기장을 짝사랑해서..
고백도 하고 몸도 던졌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런다더라.. 천박한 소문까지.
고생이 너무 많았지. 우리 슬기씨가.

조금 놀라는 여자 정우의 표정.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이사 (자랑스레) 그래서 내가 한에어로 스카웃 제의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더라고.
워낙 스펙이 좋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슬기 이사님.

슬기가 굳은 표정으로 노이사를 바라본다.

슬기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 안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노이사 ... (당황) 응?
슬기 저 조종사예요. 아마존 여전사들 그런 거.. 많이 이상합니다.
말 만들어 붙이는 것도 불편하고요.
노이사 아.. (힐끔 여자정우보다, 싸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슬기가 다시 식사를 시작한다. 어색하게 침체된 분위기 안에 조용하게 이어지는 식사.
여자정우는 화가 나면서도, 슬기가 안쓰러운 복잡한 기분이다.

63. 대로변 / 밤

노이사를 태운 차량이 멀리 멀어진다. 나란히 서서 바라보던 여자정우와 슬기.
insert. 차량 안에서 슬깃 멀어지는 여자정우와 슬기를 돌아보는 노이사. 기분이 상해 보인다.

슬기 저 사람 너무 믿지 마. 난 저 사람 믿어서 온 거 아니야.
 (보고) 계속 비행하고 싶어서 온 거지.

두 사람이 뒤돌아 함께 걷기 시작한다.

정우(여) (생각이 많아 보이다 입을 연다)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슬기 누구? 한정우? 글썄다.
정우(여) 고작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격앙되기 시작하는) 잘리고,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뺏겨서...!!
슬기
정우(여) .. 졌을 수도 있지 않나. 어쩌면.

여자정우를 뵈히 바라보는 슬기의 표정, 눈을 깜빡이다가 싱겁게 웃어버린다.

슬기 이런 애긴 그만하고.. (사이) 저번에 나한테 할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정우(여) 아니.. 아냐. 별 거 아니었어. 그리고.....나는 한정우 이해 돼.
슬기
정우(여) 세상 사람들이 다 언니처럼 살 수는 없잖아.

슬기를 두고 먼저 걸어 나가는 여자정우. 슬기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신경 쓰이는데...
그 위로 경쾌한 음악 흐르고-

64. 한정미 몽타주

#. 스튜디오 / 오전

여자정우가 한에어 유니폼을 입은 채 화보 촬영에 임하고 있다.
포토그래퍼의 유머러스한 디렉팅에 함박웃음이 터지는 여자정우.
팡팡- 터지는 플래시에 맞춰 바뀌는 정우의 포즈.
사진 촬영한 정우의 사진 그대로-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바뀐다.
insert. 월간여성 10월호. [한정미, 그녀가 궁금하다. 집중탐구] 타이틀이 뜬다.

#. 유퀴즈온더블럭 / 오전

유재석과 조세호가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온다.
의자에 앉아있는 유재석과 조세호.

유재석 오늘 또 우리가 만날 분이.. 느낌이 좀 오시죠?
조세호 약간 또 비행기와 관련 된 분인 것 같아요!

유니폼을 입은 여자정우가 손을 흔들며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오다가 스틸 잡히며
[이 시대의 영웅 한정미] 자막 뜬다.

유재석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우(여) 아이고..제가 더 영광입니다.
조세호 어디서 많이 뵈 분 같은데.. 낮이 익어요.
유재석 당연하죠. 저랑 어제 같이 뉴스 보셨잖아요.
조세호 아 예... 그랬죠.

호호호 웃음을 터뜨리는 세 사람..

#. 주상복합 아파트 / 오후

빠끔 문을 열고 바라보고 있는 시후. 계속해서 커다란 선물박스들이 도착한다.
눈이 휘둥그레 진 채 바라보고 있는 시후. 시후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한다.
[필요한 건 다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웃으며 박스를 풀어보는 시후. 발레슈즈와 발레복, 머리끈, 마론 인형 등등이 들어있다.

#. 정우의 본가, 거실 / 오후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있던 정미.

<한정미도 성형한 듯> 글을 보고 클릭하면 놀랍게도 여고시절 정미와 여자정우의 사진이 비포, 애프터로 게시되어 있다.

본문, 솔직히 일반인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라면 성형하길 잘한 듯.

댓글.

그래서?

└ 의느님 대단.

줄라 남상임.

미인들 중에 은근히 남상이 많음.

다른 사람 같은데 파일럿도 성형됨?

확 열 받은 정미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비포는 쌍얼 같은데 꾸미면 예쁠 듯ㅋ 한정미는 화장 지우면 별로일 거 같은데;;

바로 댓글이 달린다.

└ 대한여고 정미야 안녕?

└ 본인등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뭐하냐? 우냐?

분통을 터뜨리는 정미.

#. TV화면 / 오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침대에서 이제 막 일어난 여자정우가 뒤돌아 카메라를 쳐다보고 대사한 뒤 프레임 아웃한다.

정우(여) 설마 그 많은 약을 다 챙겨 드시게요?

한강 공원에서 조깅 중인 여자정우,

정우(여) 우리 딱 한 알로 아프지 말고 살자구요.

화면 삼분할 되며 각각 다른 컨셉의 이마를 짙은 여자정우, 볼을 감싼 여자정우, 아랫배를 감싼 여자정우의 모습 등장한다.

정우(여)(E) 두통! 치통! 생리통엔!
천연유래성분으로 만든 한국인의 통증약 그나리아.

[두통, 치통, 생리통엔 그나리아] 멘트 떠오른다.

#. 길거리, 택시 안 / 밤

여장한 정우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창문 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간다. 여자정우를 중심으로 임신부,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배치한 전형적인 감동광고가 붙어있다. [한에어, 당신과 늘 함께 합니다.]

열은 미소를 띤 채 바깥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이때, 라디오에서 후크가 강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래(E) 여신~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가진 그대는 여신~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그녀는 멋짐이 뽀뽀.. 뽀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여자정우.

정우(여) (따라하며) 뽀뽀.. 멋짐이 뽀뽀..

노래(E) 그녀의 이름은 바를 정, 아름다울 미. 뽀뽀정미.

정우(여) 뽀뽀 정... (하다가) 정미?

놀란 듯 고개를 드는 여자정우. 백미러를 통해 기사와 눈이 마주친다.

신명나게 뽀뽀정미 송을 부르고 있는 택시 기사. 황당하다는 듯 기사를 바라보는 여자정우.

택시 나는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크~ 얼마나 의협심이 넘치고... 그 상황에서도 침착해요?

그러다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정미를 보고 씩 웃는 택시기사.

택시 (따봉을 날리며) 이거 완전 가문의 영광입니다.
(주섬주섬 거리며 뭘 꺼내면) 저 한정미씨 팬클럽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국회로 거주십시오.

정우(여) (당황) 앞에 트럭.. 전방.. (다급. 남자목소리) 아저씨 전방! 전방보세요!

insert. 서울 밤거리를 쪽 달려 나가는 택시. 음악 끝나며_

65. 무용학원, 입구 / 오후

시후가 여자아이들 틈 사이에서 열심히 무용을 하고 있다.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우의 모습.

진지하게 무용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짓궂은 표정도 짓는 시후의 모습.

cut to.

수영이 정우와 시후를 배웅한다.

시후 다녀오겠습니다.

66. 공원 / 오후

활기찬 분위기의 주말 공원. 주변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원 이용객들이 가득한다.

시후와 정우가 캐치볼을 하고 있다.

정우가 던지는 공이 포물선을 그리고 시후 앞에 떨어진다. 시후는 공을 제대로 잡아낸다.

정우 나이스 캐치!!

시후가 정우를 향해 웃어 보인다.

시후 아빠랑 엄마는 다시 결혼 안 해?

정우 응.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슬프니?

시후 응. 학교에서도 당황스러워.

정우 미안해 아빠가.

정우가 다시 시후에게 공을 던진다. 받아내는 시후.

시후 다른 사람이랑은 결혼할 거야?

머리끈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오는 시후.

자연스레 잔디밭에 앉는 정우와 뒤따라 다리 사이에 앉는 시후.

정우 모르겠어. 대신 전부 다 좋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시후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

시후의 머리를 모아서 묶어주는 정우.

정우 뭔데?
시후 아빠가 전보다 나한테 관심이 많아진 거 같아.

그제야 시후의 머리끈을 확인해보면 발레슈즈가 달린 머리끈으로 정우가 선물로 보낸 것이다.

정우 마음에 들어?

격하게 머리를 꼬덕꼬덕하는 시후. 머리를 묶는 정우의 표정. 미소 띄고 있으나 고민이 가득하다.
이때 카톡이 울린다. 슬기다. *[많이 바쁘가 봐. 얼굴을 통 못 보내.]*다.
무심한 표정으로 문자를 확인하는 정우. 메시지가 하나 더 떠오른다.
[집 앞인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표정이 삭 굳는 정우.

67. 정우의 본가 앞 / 오후

급하게 여장을 하고 서둘러 집 앞으로 달려 걸어오는 여자정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슬기와 마주친다.

정우(여) ... (숨 고르며)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슬기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정우(여) (오버) 아니~ 내가? 언니한테? 그런 거 없는데.

역력하게 티 나는 여자정우의 거짓말에 서운해지는 슬기.

슬기 (화제전환) 왜.. 요즘 비행스케줄에 계속 빠져있어?
정우(여) 아.. 그거.. 당분간 비행 안하기로 노이사님이랑 얘기했어.
인터뷰도 너무 많고.. 화보 촬영하는 것도 은근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니까.
슬기 .. 그래?
정우(여) (오버)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로 하지.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하지만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여자정우를 바라보는 슬기.

슬기 괜찮아?
정우(여) 뭐가?
슬기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비행은 안 해도 괜찮은 거냐구...

슬기의 이야기에 한 대 얻어맞은 듯 표정이 굳어지는 여자정우.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슬기의 눈을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
반대편에서 푸른색 차림의 안자여사가 캐리어를 끌며 걸어온다. 한손에는 와플 상자가 들려있다.
엄마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여자정우. 뒤로 돈다.

실눈을 뜨고 정우를 유심히 바라보는 안자. 순식간에 얼굴에 웃음이 돈다.

안자 맞네! 맞네 맞네! (더 자세히 보며) 맞아.. 맞다구!!

안자에게 어택당한 여자정우와 슬기.

안자 맞다. 그쵸? 멋짐이 뽀뽀!!
정우(여) (.. 못 알아본 건가?) 아.. 예.. 안녕하세요.
안자 세상에. 내가 우리 영웅님 다음으로 엄청 좋아해요.
 (슬기에게 핸드폰 쥐어주며) 나 사진 좀...
슬기 (영접결에) 아, 네.. 찍어 드릴게요.

찰칵- 안자의 핸드폰에 담기는 여자정우와 안자의 사진. 여자정우가 쓴웃음을 짓고 있다.

안자 와플 좋아해요? 같이 좀 들고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
슬기 어?.....여기 사세요?
안자 응.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세상에 우리 집에도 한정미가 한 명 더 있는데.. 어
 쩍 이렇게 다른지.
슬기 (놀라며) 정말요?
안자 응. 우리 집 한 정미는..

이때 어디선가 짱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나 진짜 정미가 손에 들고 있던 분리수거 쓰레기들을 떨어뜨렸다. 사색이 된 정미의 표정.

68. 정우의 본가, 거실 / 오후

행여나 슬기와 안자가 눈치를 챌까 눈치를 보며 커피며 와플을 내어온다.

여자정우 역시 전전긍긍하며 이들 사이 눈치를 보고 있다.

안자 그나저나 우리 집 한정미허고.. 이 한정미허고.. 룸메이트다?
슬기 정말 너무 신기하다.
정미 어차피 엄마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오빠 방도 비는데 아깝잖아.
안자 .. (의심의 눈초리) 오빠는?
정미 오빠는 그.. 저기.. 어.. 나갔어. 방 구해서.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하는 안자.

정미 엄마. 어디 전화해?
안자 니 오빠.
정미(여) (절규) 어머 어머님!!!
정미 어, 엄마! 잠깐! 오빠 지금...!

어디선가 핸드폰이 자지러지게 울리기 시작한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나는 여자정우. 슬기가 놀라 바라본다.
누가 봐도 여자정우의 Z플립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망했다! 정미,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듯 차라리 눈을 가려버리는데.

정우(여) 여보세요. (사이) (코웃음)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한번만 더 전화하시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전화 끊는 시늉)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가 다시 귀로 가져가는 안자..
안자는 여전히 신호가 가고 있는 듯 전화기를 붙들고 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토끼 눈을 뜨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미.
여자정우가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위기 상황을 모면한 것인데.

정우(여) 제 딸이 지금 납치됐다고...호호...삼천만원을 부치라네요...
슬기 아...보이스 피싱?
안자 애는 또 왜 전화를 안 받아?

다시 또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로 가져가는 안자.
바로 자지러지게 또다시 울리는 여자정우의 핸드폰.

정우(여) 어머! 제발! 보이스 피싱! 그만 좀 해 그만 좀 제발!!!!

핸드폰을 반대로 접어 던진 후 박살을 내버리는 정우.
놀라서 여자정우를 바라보는 세 여자. 여자정우 손부채질을 하며,

정우(여) 죄송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갑자기 내가 막 내가 아닌 것처럼...
안자 (정미에게 귓속말) 보기보다 성깔이 대단하다야.

진정하고 여자정우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 포기한 듯 전화를 내려놓는 안자.

정미 안 받지? 오빠 비행 중인가본데?
안자 설마 나이 오빠가 엄마 생일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슬기 어머님 생신이세요?

놀라서 시선을 마주치는 정미와 여자정우.

안자 다음 주. 내가 이제 칠순인데 그런 거 딱 질색이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일 년 전부터 예식장을 잡아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 이제.. (아쉽) 엑스.. 며느리인데..

그러다 다시 씩 웃는 안자.

안자 (슬기 향해서) 암튼 시간 되면 놀러 와요.
슬기 저요?
안자 그럼~ 잔치인데 사람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내가 친구도 얼마 없어서 창피스러울까봐 그래.
슬기 어? 친구 분 많으실 거 같은데.....(눈치)
안자 없어. 죽었어 다. 내 나이 되면 슬슬 그래요.
(여자정우 향해) 여기 한정미씨도 와주면 너~ 무 의미 있을 거 같은데.
정미 (눈치) 아니, 엄마는 한정미도 바쁠 텐데.. 거길 왜 가.. 한정미는 그런 데 안 가.

안자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여자정우의 표정.

안자 꼭... 올 거죠? 나 이제 언제 갈지 몰라.

안자의 눈빛이 간곡해 거절할 수가 없는 정우. 좌절하는 정미.

69. 이벤트 홀 / 낮

[마량할미 칠순잔치] 입간판 앞. 이제 막 도착한 선글라스 낀 정우 옆 정미.

정우, 한 손으로 큰 스포츠가방을 들고 있다.

북적이는 이벤트 홀 내부를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

안자의 구친구들로 추정되는 계모임 아줌마들 모임에서부터 푸른색 유니폼들의 영시들까지..복작복작.

이들과 어우러져 웃고 있는 연푸른색 한복차림의 안자.

구친구들과 힘차게 외친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와아아!!

어이없어하는 정우에게 달려와 안기는 시후.

시후 아빠 그거 가방 뭐야..?
정우 아.. 이거..
정미 (가로채며) 저거 아빠의 비밀주머니야. 알려고 하면 시후가 다쳐.
시후 ... 비밀? .. 다쳐?

말이 떨어지자 정미를 확 노려보는 정우의 얼굴. 바로 이때, 정미 뒤로 나타나는 슬기.

슬기 정미씨!

동시에 돌아보는 정우와 진짜 정미. 슬기가 정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다.

정우를 뵈히 바라보는 슬기. 정우가 슬기를 보고는 당황한다. 오빠를 소개하는 정미.

정미 (번갈아 보다) 아.. 저희 오빠예요.
슬기 아.. 그래요? (하다 웃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 (선글라스 가리키며 괜히) 다래끼가 나서요.

슬기가 손을 내밀자 어색하게 잡고 악수하는 정우. 슬기가 정우를 빤히 보다 다시 묻는다.

슬기 근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정우 (멋쩍게) 글썄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정우를 알아보는 듯 자꾸만 가웃거리는 슬기. 이때 확- 느껴지는 기시감.
(컷 회상) #60중, 충분히 알아볼 만 한 거리에서 함께 회식하던 슬기와 정우의 한 컷.
정우가 갑자기 휘몰아치듯 재채기를 한다. 얼굴을 가리는 정우.

정우 ... 에에취. 아... 비말이 자꾸.. 자꾸 튀네..
슬기 (정미 보며) 정미는 아직 안 왔어요?
정미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러게요, 틀림없이..
나올 때 같이 나오기는 했는데에~? 어디 갔나..

일부러 정우를 보며 얘기하는 정미. 정우가 얼굴을 가린 채 눈빛으로 정미를 쏘아 본다.
시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뒤에 놓인 골프가방을 바라본다.

슬기 (생각하다) 제가 전화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들고 돌아서서 걷는 슬기. 슬기가 가자마자 [슬기언니] 발신인으로 울려대는 진동벨.
정우의 Z플립 핸드폰은 투명테이프로 감겨 있다.
정우가 전화를 들고, 반대 손엔 골프가방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한다.

70. 이벤트홀, 남자 화장실 앞, 남자 화장실 / 낮

두리번거리다 스포츠 가방을 들고 여자 화장실로 향하지만 복세통인 화장실.
우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정우.
다행히 남자 화장실엔 사람이 없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세면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여자 옷을 꺼낸다. 갈아입기 시작하는 정우.
서둘러 지퍼를 올리고 킁킁대며 스타킹을 신는다.
화면 바뀌면, 가발을 뒤집어쓰며 나가는 정우.
세면대 앞에 서는 여자 옷 입은 정우. 이제 제법 노련한 솜씨로 거울을 보며 분칠을 시작한다.
분장을 다 끝내자 좌변기 칸 문이 열리며 남자 손님이 나온다.
비명을 지르며 호들갑을 떠는 정우.
너무나 당황한 남자 손님,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간다.
어리둥절하며 화장실 표지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남자 손님. 아무리 봐도 남자 화장실인데.

71. 이벤트홀, 여자화장실 앞 / 낮

순식간에 변신을 마친 채 남자 화장실 앞으로 나오는 여자정우.
얼른 스포츠 가방을 누가 보기 전에 숨겨두고.
이때 화장실로 들어오던 슬기와 마주치는 여자정우.

슬기 정미야. 뒤.
정우(여) 어?
슬기 어휴.. 칠칠치 못하긴...

여자정우가 뒤 돌아 미처 잠그지 못한 지퍼를 다 올려주는 슬기.

슬기 난 이만 가볼게.
정우(여) 왜 더 있다가 가지.
슬기 진심이야?
정우(여)
슬기 사람도 많은 거 같고. 인사는 드렸으니까 나는 이쯤에서 빠지는 게.....

저 멀리 팡파레 소리와 함께 사회자 목소리 들린다.

영시1(E) 행운의 넘버 38번! 38번 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었습니다!

72. 이벤트홀 / 낮

여자정우, 정미, 슬기, 시후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합석해 있는 안자.
슬기가 38번 선물 포장을 뜯으면 임영웅의 전신이 프린트된 바디필로우가 등장한다.

안자 어머! 축하해요! 제일 좋은 거 가져가네.
영시1(E) 럭키 세븐! 7번! 축하드립니다. 최신식 커피 머신이네요.
이건 제가 가지고 싶네요.

정미는 어느 새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계속 소주를 들이키고 있다.
눈이 가득 충혈 된 채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는 정미.

정미 (취한 채) 하.. 불쌍한 우리 엄마..
 (홀쩍)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만 하고.. 대학도 못 가고..

기어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고 마는 정미.

슬기 .. 정미씨. 괜찮아요?
정미 (취한 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요.. 진짜 불쌍하게 살았어.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이렇게까지 가부장제의 희생양이 되진 않았을 텐데..
진짜.. 내 마음이.. (눈물을 툭툭)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순간 정미의 등짝을 후려치는 안자.

안자 아휴. 30년 늦게 태어났으면 니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
 오빠나 찾아봐 줘..꼭 중요할 때 없어요..
정미 (영영) 엄마.. 우리 엄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안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시후야. 아빠 어딴는지 몰라?

시후가 여자정우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안자. 멀리 사라지는 안자의 모습을 보는 초조한 표정의 여자정우.
여자정우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슬기 어디 가?
정우(여) 어? 아.. (하다) 아니.. 배가 너무 아파서.
슬기 생리통이야?
정우(여) 어? 어어.. 생리통..
슬기 앉아 있어. 약국은 내가 다녀올게.

슬기가 여자정우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더니 자신이 일어난다.
이벤트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슬기. 여자 정우가 그 모습을 숨죽여 보다가 문 밖으로 나가는 걸 확
인하자 후다닥 일어난다. 시선 따라가는 시후. 곧 경쾌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73. 몽타주 / 낮

#. 여자화장실 앞.

가발을 벗음과 동시에 여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정우를 구경하는 아이들.
곧 순식간에 남자 복장을 한 정우가 튀어나온다. 정우의 변화를 보고는 가웃- 하는 아이들.

#. 여자화장실 앞.

다시 한정미의 모습으로 달려오는 정우.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
또다시 남자 복장을 한 정우가 튀어나온다.
이제는 아예 뷔페 접시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정우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관전하고 있는 아이들.

#. 이벤트홀

생리통 약을 들고 자리로 돌아온 슬기. 거나하게 취해 널브러진 진짜 정미만 보이고..
여자정우가 사라지고 없다. 순간적으로 헉헉대며 선글라스 낀 채 도착하는 정우.
슬기와 마주친다.

정우(여) 언니.....

뻘뻘 바라보던 슬기의 표정. 정우가 황급히 언....언....입소리를 낸다.

정우 요즘... 성대모사 연습하고 있어서. 핸드폰 진동소리. 언.....

속- 냅킨을 내미는 슬기. 받으라는 듯 재촉한다.

슬기 열정을 즐기면서 사랑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한정우씨는.

정우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아... 제가 좀... (냅킨 받고 입술 지우다가 멈칫)
언제부터?.....

슬기 그냥 딱 봐도 선글라스 낀 한정우씨인데요..

민망한 듯 선글라스를 곱게 벗는 정우.

정우 (주저하다가) 그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슬기가 쳐다보면

정우 처음엔 억울하기만 했는데..... 우연히 슬기씨랑 비슷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슬기씨 입장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슬기 고마워요. 처음부터 진심어린 사과 하나면 충분했어요.

당황하는 정우..

슬기 친구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처럼 살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저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 다 너무 멀리 온 거 같죠? (웃는)

정우 ...미안합니다.

슬기 근데 혹시 잘리고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뺏겼어요?

정우 아...그건.....

사람들과 인사 나누던 안자.

안자 한정미씨 못 봤어? 여기 내 친구가 사진 꼭 한번 같이 찍고 싶다는데.

슬기 글썄요.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딜 그렇게 다니지..

정우 (가리키며) 어? 저기 한정미씨 아니에요?

정우가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 돌아가는 슬기와 안자. 그 사이를 틈타 정우가 재빠르게 달려간다.

슬기, 무심결에 정우가 앉아 있던 의자에서 지갑을 발견한다.

누가 흘린 거지? 지갑을 집어 드는 슬기. 열어본다. 신분증을 찾아 꺼내는데 한 장이 더 나온다.

조종사 면허증 글씨가 보인다.

안자(E) 제가 이런 데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74. 이벤트홀 / 오후

정미와 나란히 앉아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안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자 결혼식이야.. 내가 주인공이었나.. 부모님들 손님 인사하느라 바빴지 뭐..

여자정우가 차분히 엄마의 말을 듣는다.

안자 그리고 나서는 뭐.. 애들 돌잔치.. 졸업식, 입학식.. 애들 결혼식..
술한 무슨 무슨 식에 참석을 해봤는데.. 다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애들 아빠 그 알곳은 양반은 장례식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가더라구..
재작년에는 웬걸. 뭘 전염병까지 돌기에
평생 주인공 한번 못 해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안자의 말.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

안자 한평생을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은 딸, 여자, 아내, 엄마, 할
머니..... 한계를 정해놓고 역할놀이 하느라 시간을 다 쏟은 거 같아요. 처음부
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데도요.

정적이 흐른다.

안자 이렇게 외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정우의 마음이 뭉클 해진다.

#46의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푸른색 영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

영시1 그럼 지금부터, 마량할미의 손주. 한시후군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음악이 들려오고 시후가 무용복장을 입고 등장한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을 추는 시후. 즐거워하는 안자의 표정.

서투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시후의 공연.

영시들의 신나는 공연도 이어진다.

순간 둘러보는 여자정우. 모두가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들 보인다. 슬기가 안 보인다.

슬기의 자리에 놓여있는 정우의 지갑.

영문을 모른 채 슬기에게 카톡하는 여자정우.

[언니 언제 갔어?]

이때 사진을 요청하는 팬의 요구에 응하는 여자정우.

75. 공원, 가로수길 / 밤

시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있는 정우. 이때 시후가 아빠를 올려본다.

시후 아빠.
정우 어..
시후 왜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행동을 해?

시후의 말에 놀란 듯 바라보는 정우.

정우 ... 알고 있었어?
시후 어떻게 몰라. 냄새가 아빠 냄새인데..

시후를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 복잡 미묘하다.

시후 왜 여자 흉내를 내는 거야?
정우 그건.. (보다) 사람들이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시후 정말?

정우를 빤히 바라보는 시후.. 말문이 턱 막히는 정우.

시후 ..난.. 여자흉내 내지 않아도 아빠가 좋은데..

시후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한 정우의 표정.

76. 공원, 가로수길 / 밤

수영이 서 있고 저 뒤편에 수영의 남자친구가 보인다.

시후 아빠.. 안녕.
정우 응. 시후야 또 보자.

...삼촌!!!하며 수영의 남자친구에게 달려가는 시후의 모습.
수영이 되돌아가려는 순간.. 정우가 깊이 생각하다

정우 수영아.

멈칫하는 수영의 표정. 천천히 뒤를 돈다.

정우 우리 엄마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해야 했던 일인데, 미안..
수영

정우 그리고.. 시후... 정말 재능 있더라. 네 말이 맞았어.
(잠시 뜸들이다, 미소) 잘 지내. 진심이야.

수영이 가만히 선 채 생각한다.
돌아서서 멀어지는 정우를 바라보던 수영. 정우를 불러 세운다.

수영 오빠!

정우가 뒤돌아 수영을 바라본다. 수영이 한달음에 달려와 정우 앞에 선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다가 말없이 어깨를 한번 툭툭 털어주고.

수영 오빠도 잘 지내.

잠시 정우의 눈을 바라보다 뒤 도는 수영.
남자친구, 시후와 합류하는 수영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우. 반대로 제 갈 길을 간다.

77. 병원, 1인실 / 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던 현석. 느닷없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지른다.

현석 으아아아아악!!! (생각났다) 한정우!

78. 한 에어 본사 로비 / 오전

여장을 한 채 본사로 출근하는 정우. [언니 언제 갔어?] 슬기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는 여자정우.
[뭐해?] [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하지만 아직 1이 없어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다. 여기저기 쑥덕대고 있는 사람들.

소리(E) 아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소리(E) 미국에서는 대놓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긴 아직 한국이잖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여자정우.
띠링- 여자정우의 핸드폰이 울린다. 슬기의 답장인가 싶어 재빠르게 열어보는 여자정우.
[한에어에 성적 정체성을 감춘 여자파일럿?] 전형적인 찌라시 헤드라인.
일그러지는 여자정우의 표정. 핸드폰을 열어본다.
그동안 슬기와 여자정우가 함께 있던 모습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돌아다니는 중이다.
여자 정우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슬기의 얼굴은 맨 얼굴 그대로다.
[애 맞지? 출근은 했나본데.]
누군가 슬기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렸다. 장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하는 여자정우.

79. 한에어 일각 / 오후

슬기와 여자정우가 나란히 앉아있다. 여자정우가 대뜸 슬기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정우(여) 그만 둔다고? 언니가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슬기
정우(여) 언니.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
 항상 멋지게 할 말 다 하고.. 깨끗한 사람이잖아.
슬기 너무 지쳤어. 일도 사람도.. (실소) 쉬고 싶다.
정우(여) 언니.....
슬기 다시 미국으로 갈 거야. 어차피 다녔던 학교에 교관 자리도 났다고 하고.
정우(여) 그럼... 그럼.. 우리는 (울컥) 나는 어떡하라고.

눈물을 훔치는 여자정우를 가만히 쳐다보던 슬기.

슬기 정미야.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정우(여) 응?
슬기 그때 하와이 다녀와서 하겠다던 말.. 뭐였어?
정우(여) 내가 무슨 말 하려 했지? 잊어버렸어. 기억이 잘 안나.
 그것보다 이번 일은.....

슬기의 깊은 한숨소리에 당황해서 쳐다보는 여자정우.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가버리는 슬기.

여자정우가 쫓아오며 붙잡는데

슬기 (뿌리치며) 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어?
정우(여)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슬기 우리 진짜 너무 멀리 온 거 같다.
정우(여)
슬기 정신병자는 치료라도 되지 뭐니 대체 넌.

홀로 남겨진 여자정우. 아차 싶은 여자정우.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듯... 멀어져가는 슬기의 뒷모습을 보다가 반대편으로 내달린다.

80. 한에어 회의실 / 오후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자 정우. 노이사가 활짝 웃는 낯으로 맞이한다.

노이사 어, 한기장. 안그래도 부르려고 했었는데.
 한에어 3분기 매출이 10년 만에 최고를 경신했어요. 모두 한정미 효과야.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정우(여) 이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캐치한 듯 노이사가 사람들을 내보낸다.

cut to.

회의실 안, 단 둘만 남은 여자정우와 노이사.

정우(여)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 알고 계셨어요?

 성적정체성을 감춘 기장이 있다고...

 별 것도 아닌 사진들인데 모자이크를 해서 돌아다녀요. 이상하잖아요.

노이사 승객들을 지키지 못한 건 서현석 기장 책임이야. 자기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모함이나 하고.

놀란 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로 노이사를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

노이사 서기장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 한정미가 사실은 남자라더군.

 사고 당시 기장의 기내 방송 목소리가 분명히 남자였다는 탑승객들의 증언도 나왔고. 뭐 단체로 미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흠칫, 놀라는 정우.

노이사 다행이 서기장 쪽은 어떻게 수습은 했는데 헛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더라고.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지 뭐야.

81. 한에어 브리핑 실 / 오후

노이사의 목소리 퍼지는 위로 시선을 감내하며 서 있는 슬기의 모습이 보인다.

노이사(E) 사람들이 한정미의 존재에 티끌만한 흠이라도 잡아선 안 돼.

 새로 통합될 항공사의 헤드파일럿은 고귀한 잔다르크여야 하거든.

수군대며 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짐짓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스낵바를 이용하는 슬기.

노이사(E) 소문의 주인공이.. 한정미여서는 안되지 않아?

백기장이 슬기를 아주 더럽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다.

82. 한에어 회의실 / 오후

그제야.. 노이사를 바라보는 여자정우.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정우(여) 그럼 그 사진들.. 다 이사님이..
노이사 강 건너 불구경은 못 막아. 다른 데에 불이 나면 또 몰라.
 왜, 뭐 문제 있나?
정우(여) 비행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이잖습니까.
노이사 자기야. 나도 그런 건 알아. 나도 개개인의 자아 정체성.. 성적 취향 다 존중해.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거고.
정우(여) ... 네?
노이사 난 우리 셋이.. 정말 좋은 팀이 될 줄 알았어. 속상해. 정말이야.

여자정우를 바라보는 노이사. 여자정우가 기가 막혀한다.

정우(여) 이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이사 응?
정우(여) (충격 받은) 이렇게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여자정우가 그대로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노이사가 여자정우를 부른다.

노이사 (나지막이) 야. 한정우.

멈칫하는 정우.

노이사 .. 너 내가 정말 모르는 줄 알았니?

핸드폰 녹음기를 재생하는 노이사.

#51 비행기 사고 상황이 고스란히 플레이된다. 또렷하게 녹음된 현석의 목소리. 정우 선배? 블랙박스.

정지 버튼을 누르는 노이사의 손끝.

천천히 뒤돌기 시작하는 정우.

노이사 재벌가에 있으면 오만 꼴을 다 보지. 그래서 이런 걸로는 놀라지도 않아..
 근데 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 국민을 상대로.. 뒤통수를 친 건데.. 니 생각은 어때?
정우 (남자목소리로)... 다.. 당신..
노이사 게다가 윤슬기 개는 배신감이 상당할 거 같은데.. 어때. 진짜 사표 쓸 거야?

질끈 입을 악무는 정우.

노이사 잘 생각해 봐요. 나한테 아직 한정미가 쓸모 있거든.

정우 ...
 노이사 딱 1년만. 내년에 내가 한정우로 한국항공에 복귀시켜줄게.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쏘하면서 여장할 필요도.. 여자 흉내를 낼 필요도 없어.
 (보고) 나 믿어 봐.

바라보는 여자정우의 표정.

83. 한에어 본사 로비 / 밤

아무도 없는 한에어 로비를 빠져나가는 여자정우의 모습.

노이사(E) 조만간 한국항공과 한에어 통합이 결정됐단 기자회견이 있을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대표이사 자리에 취임할거고.
 회장엔.. 당연히 내 사람으로 가득 채울 거야. 한정미도 물론.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월패드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한정미의 모습.
 서서 한참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정우.

84. 강릉 바다 위 / 밤

insert. 망망대해를 떠있는 바다 위.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안자와 영시들이
 오징어 배 성지순례를 하는 중이다. 뒤로 배 공간에서 뿡뿡- 뱃멀미하는 영시들 보인다.
 능숙한 마로도스처럼 표정하나 안 변한 채 전화를 받는 안자.

안자 니가 어쩐 일이니?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다하고.
 정우(F) 엄마. 왜 이렇게 잘 안 들려? 지금 어디야?
 안자 성지순례중!! 용건만 빨리 말해!! 여기 바다 위라 금방 끊겨!!

85. 포장마차 / 밤

#8과 동일한 자리에서 케첩으로 ㅏ 비 스 라고 적혀 있는 계란말이를 허탈하게 바라보는 여자정우.
 지직거리는 통화음을 들으며, 엄마에게 묻는 여자정우.

정우 엄마. 나만하면 꽤찮은 아들이었지 그치? 내가 공사도 수석 졸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손주도 안겨주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엄마는 알지?
 안자(F) 잘리고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뺏긴 건 왜 빼먹어?
 정우 잘린 거 알고 있었어?
 안자(F) 왜 몰라 그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님데.
 엄마는 니가 여장을 해도 다 알아.

눈물이 내려는 걸 참으며 여자정우..

정우 나 파일럿 괜히 했나봐 엄마..... 나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할 걸...
돈 좀 못 벌어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걸...
인생이 너무 꼬여버려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와.
정우모(F) 누가 들으면 누가 너 그거 하라고 등 떠 민 줄 알겠냐 애.
정우 어?
정우모(F) 초등학교 때 고모 집 갈 때 큰~ 비행기 한번 타보더니.
그때부터 노래를 불렀잖아. 멋진 비행기 조종사 되겠다고. 기억 안나?

86. 강릉 바다 위 / 밤

통화 중인 안자의 모습.

정우모 아들아 우리 나만 생각하고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사이) 아 그리고 용돈이나 좀 부쳐라. 오징어 좀 사가게.

하더니 가차 없이 달각. 전화 끊어버리는 안자.

87. 포장마차 / 밤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자정우. 끊겨진 전화를 한참이나 바라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매우 오묘한 얼굴이다.

88. 기자회견장 일각 / 오전

여장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정우. [한국항공, 한에어 법인 통합] 플랜카드가 나부낀다.
휘황찬란한 장내. 여기저기 엄청나게 몰려든 청중들이며 기자들이 보인다.
노이사가 단상 앞에 서자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낸다.

기자1 앞으로 한국에어의 경영 모토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자2 한국에어에서 헤드파일럿을 한정미 기장이 맡게 되리란 게 사실입니까?

여유히게 기자들을 바라보는 노이사의 얼굴. 여자정우는 그 옆에서 멍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노이사 새로운 항공시대.. 한국에어의 출범을 알리며..
 우리의 헤드파일럿 한정미 조종사를 소개 합니다.

쏟아지는 박수. 긴장하는 여자정우의 표정.

앞으로 한국항공과 한에어의 중역들을 비롯, 직원들도 참석해 있는 모습 보인다.

89. 한에어 로비 / 오전

짐을 챙긴 슬기가 로비를 걷고 있다.

여자정우의 음성을 듣고 멈춰 서서 월패드를 응시하는 슬기.

정우(여) 안녕하세요, 저는 한에어의 기장 한정미..

슬기, 집중한다.

90. 기자회견장 / 오전

카메라 앞에 서자 여기저기에서 팡팡 터지는 플래시들. 손에 쥔 노란 봉투를 내려 보는 여자정우.

정우(여) 한정미... (말문 막히고)..

여자 정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 들린다.

자신 앞에 선 카메라들을 보고 깊게 고뇌하는 듯한 여자 정우의 표정.

노이사가 종용하며 여자 정우를 바라본다.

정우(여) 한.. (깊게 생각하다 중얼) 한..

기자3이 손을 든다.

기자3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많은 승객들이 기장의 안내 방송 음성을 남성의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이사가 턱짓을 하자 마이크를 꺼버린 듯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기자3.

기자3 비행기를 착륙시킨 것이 한정미 기장이 아니라 같은 날 조종석에 있던 남성 기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자3이 끌려 나간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기자4 고의로 여성들을 우대 합격시켜서 얻어낸 결과가 한정미 기장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여성 우대 채용으로 많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양복 사내 중 하나가 노이사에게 다가와 타블렛을 내민다.

장내가 술렁이자 의식하는 여자정우. 여자정우도 핸드폰을 확인한다.

타블렛을 확인하는 노이사. 기자회견장의 사람들이 하나 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 뉴스 화면

앵커가 뉴스를 보도 하고 있다.

화면 밖에서 휠체어를 탄 채 상황을 지켜보는 현석의 모습, 비릿한 미소. 스튜디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한에어 비행기 추락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 부기장 한정미씨가 215명의 승객들을 구하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진실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KMS가 단독입수 한 녹음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여)(E) 기장님, 기장님.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현석(E) 어허, 이머전시에서 상황대처와 순발력은 여자들보다 남자가...

정우(E) 아가리 싸물고 핸들 내놓으라고 새끼야아!!

91. 비행기 조종석 / 오후 (과거회상)

순간 정적. 심각한 와중에도 현석이 천천히 여자정우를 돌아본다.

현석 (순간 침묵) 정우선배?

정우가 순간 에라 모르겠다! 주먹을 크게 휘둘러 퍼! 현석을 기절시킨다.

이를 악물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는 여자정우. 빠른 속도로 요동치는 기체.

마이크를 잡은 여자정우. 여자정우의 얼굴에 땀이 배어 나온다.

정우 (차분하게) 저희 비상 착륙합니다. 아거나 어린 아이 계신 분들 우리 승무원이 가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대한 앞좌석하고 밀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 객실 / 오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

잠시 패닉이 온 듯 울고 있던 승무원이 정우의 목소리에 눈물을 닦고 침착하게 승객들을 돌본 뒤, 자기 자리로 가서 벨트를 하고 착석한다.

정우(E) 벨트 상태, 충격방지자세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앞좌석하고 밀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비상 착륙합니다.

아이를 꼭 안은 젊은 부부의 모습.

울고 있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는 노부부.

기도하는 청년.

울면서 문자하는 학생. *아빠바엄마사라ㅇㅎ* 까지 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정우(E) 살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조종석 / 오후

점점 비행기 앞창으로 가까워지는 지상이 보인다. 추락하고 있다!

정우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흔들리는 핸들을 꼭 부여잡은 정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뜬다.

정우 제발... 제발...

순식간에 주변이 환해지고... 화이트 아웃.. 으아악! 정우가 비명을 지른다.

92. 기자회견장 / 오전

오묘한 반응의 사람들.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도 잠시 멈춰버린 듯 고요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정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눈빛을 반짝이는 정우.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우겨 버리는 정우. 곧 흘러나오는 굼직한 음성.

정우 네. 저는 한 정우입니다.

뜨악하는 소리와 함께 노이사가 놀란 듯 정우를 바라본다.

정우 그.. 유재석, 조세호.. 공사 수석 기장 한정우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 같은 그, 우리 승무원들 한정우요.. 네.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표정. 정우가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가발을 확 벗는다.

다시 카메라를 응시하는 정우. 노이사가 갑자기 역정을 내며 화를 낸다.

노이사 한정미! 너 뭐 하는 거야!

정우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려고요. 전부 그것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93. 방송 몽타주 / 오전

#. 길거리

언제나와 같이 전광판에 보이는 한정미, 아니, 속눈썹을 하나씩 뜯는 한정우.

정우(E) 네. 저는.. 남자입니다.

#. 인천공항 로비

곳곳의 TV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정우의 모습. 여행객들이 놀라 기함하며 바라본다.

여행객1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거야?

여행객2 한정미가 남자라고?

#. 정우의 본가

TV화면을 심드렁하게 보고 있는 정미. 아무런 타격 없는 듯 오징어를 씹다가, 깔깔깔 웃음이 터진다. 그러다 갑자기 흰자위가 돌아가며 옆으로 쓰러지는 정미. TV화면에 이어 나오는 말소리.

정우(E) (담담하게 이어가며) 모두를 기만하고 속인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의도가 어찌되었건 제 잘못입니다.

#. 주상복합아파트 거실

TV 화면을 바라보는 수영과 시후. 놀라 입을 틀어막는 수영.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수영의 손을 잡아주는 시후.

정우(E)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가 놓친 것들을 인정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 한에어 로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슬기.

정우(E) 무엇보다도 그날 술자리에 계셨던 승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우.

94. 기자회견장 / 오전

노이사가 급기야 물건을 집어 던진다.

노이사 야!!! 너 안 닥쳐?

갑자기 정우가 기자들 앞에서 하나 둘 옷가지를 벗기 시작한다.

노이사 (검은 양복 사내들 향해서) 뭐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정우 오지 마! 더 가까이 오면 나 팬티까지 다 벗어...

그 모습에 움찔.. 하는 노이사.

깜짝 놀라 경직되어 있던 기자들이 어느 덧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기 시작한다.

정우 (다급하지만) 이런 걸 몇 달 했다고 진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심결에 머리칼을 넘기려다가 피식 웃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정우.

정우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다려주세요.

insert. 월패드를 통해 애원하는 정우의 눈빛을 바라보는 슬기.

정우(E) 지금... 갈 테니까...

으으 닭살~ 어우우~~~ 야유하며 오글거려하는 사람들의 반응.

생중계중인 유튜브 화면에서도 댓글창이 폭발한다.

지금... 갈 테니까... 실화냐?

쌍팔년도인줄.....

아재요 제발.....

다시 기자회견장, 노이사가 노발대발 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노이사 보고만 있을 거야?! 당장 안 끌어내!!

정우에게 양 옆으로 다가오는 검은 양복 사내들. 그를 잡으려는데...

정우 (사자후로 일갈) 여려부우운!!

움찔하는 노이사와 양복사내들.

정우 (정색하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죠?
 (모두가 뭇소리야 싶은 얼굴인데_사이) 바로, 여러분.

동시에 BGM으로 윤복희의 '여러분' 흐르기 시작하며! 고속으로 전환되는 화면.

정우에게 몸을 날리는 검은 양복 사내들. 정우가 껌싸게 이들을 피한다.

정우, 시간이 없다는 듯 다급하게 달려 나가고.. 기자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

노이사는 관자놀이를 짚으면서 주저앉고... 노이사의 수하들까지도 정우를 쫓는데..

뒤늦게 장내로 나타난 휠체어 탄 현석! 문을 벌컥 열며..

현석 이 모든 것들은 다 쏘...!

하는 순간, 정우가 현석 밀치고는 빠르게 달려 나간다.

동시에 펑!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다시 기절하는 현석.

95. 길거리 / 오전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BGM.

홀려 벗겨진 트랙션 차림으로 시내 한복판을 달려 나가는 정우.

어느 새 정우 옆으로 드론이 왕왕대며 날아다니고.. 정우의 모습을 촬영한다.

시내로 달려 나오자 길거리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정우의 모습이 중계된다.

달려 나가는 정우의 모습에 주변에서 들리는 술렁이는 소리. 뒤로 기자떼가 우르르 몰려오고 있다.

96. 한에어 로비 / 오전

달리는 정우의 생중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붉그락 푸르락.. 화가 나는 슬기의 얼굴.

울컥 눈물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우의 모습이 뭔가 통쾌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한 표정.

로비를 가로지르는 슬기.

97. 길거리 / 오전

여전히 뛰던 정우. 가까스로 골목길 사이로 숨는다.

정우를 놓친 기자들이 큰길로 그대로 달려 나간다.

정우가 골목 사이로 난 좁은 계단들을 두 개, 세 개씩 성큼 성큼 올라간다.

98. 한에어 앞 / 오전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슬기, 택시에 타려다 말고 살짝 뒤를 돌아본다.

뭔가 생각하지만 결국 승차하는 슬기.

99. 길거리 / 오전

땀에 젖은 채 화장이 번진 얼굴로 끊임없이 내달리는 정우.

정우가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뛴다. 점점 한에어 입구가 가까이 다가온다.

100. 한에어 로비 / 오전

한에어 로비에 도착한 정우.

슬기를 찾으려 하지만 기자들이 정우를 에워싼다.

막막한 정우의 눈에 들어오는 슬기. 다시 돌아왔다.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려는 순간, 먼저 성큼성큼 다가오는 슬기.

정우가 기쁜 마음으로 슬기를 맞이하려는 그때, 슬기가 정우의 뺨을 한 대 후려친다.

정우 (아.. 아프다..) 저기...

다 이해한다는 듯, 뺨 맞은 부분을 꼭 잡고 슬기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정우.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차가운 슬기. 곧바로 주먹을 쥐어서 정우의 턱을 향해 날린다.

한번 피했으나 번개처럼 날아온 다음 주먹에 제대로 얻어맞은 정우.
웁.. 소리가 말려들어간다. 주먹 쥔 손이 아픈 듯 터는 슬기.

슬기 폭력에 진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진짜 한 대 못 치면 평생 후회할 거 같아서 돌아온 거야. 알아??
정우 (턱 양손으로 쥔 채) 아... 우... 그.. 그제.. 미... 미안..
 진짜... 미안... 미안해...

비틀거리는 정우를 차갑게 바라보는 슬기.

슬기 말이 돼? 옷, 이름, 목소리...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정우 내 감정은 진짜였어.

또 한 대 칠 기세이자 쭈글거리는 정우.

정우 사실대로 말하면... 두 번 다시 못 볼 거 같았어.
슬기 축하해! 예상대로 됐네!

슬기가 그대로 뒤돌아 다시 건물 밖으로 향한다. 멀리 눈으로 슬기를 따라가는 정우.

정우 내 이름은 한정우야. 80년생 원숭이띠. 성별은 남자.

걸어가다가 멈춰 서서 돌아보는 슬기.

정우 아들이 하나 있어. 나보다 어른스러워. 와이프랑은 이혼했고. 좋은 여자였어. 원
 인은 나야. 돈만 벌어드주면 내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 동생은 떠돌이인
 데 ASMR 유튜버야. 그 친구 명의로 위장취업 한 거야. 엄마는 봤지? 평생 고생
 만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좋아.

슬기, 끝내 외면하고 건물 밖으로 나간다.

정우, 차마 슬기를 따라가진 못한다. 멀어지는 슬기를 바라보는 정우.
후련하면서도 쓰리지만, 또 안타깝다.

fade out / in

암전된 위로 - 6개월 후, 자막 떠오른다.

101. 에필로그 몽타주

#. 모니터 화면
커뮤니티 글.

<한정미도 성형한 듯> 학창시절 정미와 여자정우의 사진이 비포, 애프터로 게시되어 있다.

본문, 솔직히 일반인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라면 성형하길 잘한 듯.

댓글.

줄라 남상임.

ㄴ 성지순례 왔습니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ㄴ 로또 되게 해주세요.

ㄴ 재중♥준희

ㄴ 다음 주 면접 합격하게 해주세요.

ㄴ 다이어트 성공 기원!

ㄴ 명진아 사랑해

...

#. 서울시내 성지순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화면.

나레이션 흐른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안자 할머니!'

환하게 웃으며 제작진을 맞이하는 안자의 스틸모습.

임영웅의 연습실, 숙소 등등의 인근을 셀프카메라를 들고 나다니는 안자.

영시들과 함께 활기차게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고 있다.

#. 1인 방송 부스실

ASMR 메이크업 방송을 하고 있는 정미.

좀 더 발전된 환경에서 이젠 전문적인 방송인 포스가 느껴진다.

정미 (속삭이며)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받으러 오셨죠? 그럼요~
예쁘게 헤드릴 수 있죠. 이리로 와서 앉으실게요.

원맨쇼가 아니라 진짜로 남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정미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는다.

정미는 남자를 여장시켜주는 전문 유튜브를 운영중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미미의 예쁜 것이 좋아.' 채널의 구독수가 어느덧 70만명.

정미가 남자의 얼굴을 메이크업해주기 시작한다.

정미 (속삭이며) 평소에 피부 관리 안 하시는구나. 틴틴이 팩 좀 하셔야겠어요.

모델남 (속삭이며) 타고난 건데. 피부는 엄마를 닮았거든요.

정미 (속삭이며) 어쩐지 잡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이런 피부가 진짜로 건강한 거거든요.

모델남 (속삭이며) 감사합니다.

정미, 식겁한 듯 토너를 찰랑찰랑 흔든다.

#. 무용학원

이제 능숙해진 솜씨로 무용을 하는 시후. 수영이 아이들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레슨을 해주고 있다.
엄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은 시후. 그 위로 시후 목소리 들린다.

시후(E) 아빠. 시후는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얼마 전엔 엄마랑 무용콩쿨에서 상도 받았어.

#. 현석의 집

구직 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고 있는 현석. 슈웅- 슈웅- 이메일 나르는 소리 들리고...
노이사의 어두운 얼굴 사진과 함께... [한에어, 한국항공 통합.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입해...]
기사 보인다. 한숨을 푸욱 내쉬는 현석.

시후(E) 아빠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 하와이 오후 5시

관광객들을 상대로 원주민 캠프를 제공하는 원주민들. 그 들 위로 떠가는 작은 경비행기. 고개 올려
비행기를 바라보는 원주민의 표정에서..

102. 창공 위, 경비행기 안 / 낮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정우. 동실 떠가는 구름을 보고 크게.. 심호흡을 몰아쉬다.
더벅머리에 덩수룩한 수영이 나있는 정우. 그러나 표정만은 편안해 보인다.
헤드폰을 쓴 채 방송을 하는 정우.

정우 REQUEST LANDING INSTRUCTION.
관제(E) CLEAR TO LAND, LYLI ILY EDU ACADEMY

insert. 항로를 바꾸는 작은 비행기 (세스나) 유연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
천천히 착륙을 시작한다.

시후(E) 아빠가 계속 하늘을 날 수 있어서 좋아.

비행을 즐기는 정우의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103. 경비행기 장 / 낮

작은 규모의 경비행기 비행장. 주변에 즐비한 야자수들이 하와이임을 짐작케 한다.
교관 복을 입은 정우가 원주민2, 마크를 포함한 엔지니어들과 랄리일리어로 티격태격 하고 있다.
비행기 상태가 어찌고저찌고 중얼 대는 듯. 하지만 표정은 즐거워 보이는...
그러다 문득 인기척에 천천히 뒤로 도는 정우. 누군가를 발견한다.
그 위로 슈웅- 비행기 나는 소리 들린다. 한참이나 응시하고 선 정우.
정우의 표정만 미묘하게 바뀌다가.. 미소가 번진다.

(파일럿_END)

슬레이파트너스